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풀무원이 미국, 중국, 일본 현지화 전략으로 개발한 두부 제품들 (사진: 풀무원 코리아)

미국 두부 1위 풀무원, 보스톤 공장이 원동력

2016년 에이어 소재 '나소야' 인수로 대폭 성장 기반
풀무원 미국 두부사업 11% 성장, 점유율 74%로 1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코스트코(Costco)가 판매하는 나소야(NASOYA) 유기농 두부가 주부들 사이에서 인기가. 그러나 나소야가 어떤 브랜드인지 아는 한인들은 많지 않다. 나소야를 검색하면 나소야 LLC가 보스톤 교외 에이어(Ayer, MA)에 본부를 두

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판매처를 검색하면 홀푸드(Whole Foods), 스타앤샵(Stop&Shop), 스타마켓(Star Market), 트레이더조(Trader Joe's), 월마트 등 대부분의 주위 미국 슈퍼마켓이 구입처로 나온다.

매사추세츠 사업체이기에 보스톤 등지 모

든 슈퍼마켓에서 유통하겠거니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실제 나소야는 미국 두부시장 74%를 점유한 풀무원의 핵심 브랜드이자 동시에 미국 현지 법인이다. 즉 코스트코에서 접어든 나소야 두부는 풀무원 두부였다. 미국 시장 점유율이 74%이니 미국내 어디를 가도 두부는 나소야, 아주마야(Azumaya), 또는 와일드우드(Wildwood)일 가능성이 많다.

풀무원은 2018년 풀무원USA 두부사업 매출이 8800만달러(약 988 >>7면으로 계속



출퇴근지옥 보스톤 "떠나고 싶다"

교통체증에 시달린 보스톤 임계치 도달 72%의 풀타임 근로자 분노 스트레스 주정부 교통상황 개선에 적극 나서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이른 아침 6시경 93번도로를 타고 출근하는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주차장과 다투없이 기어가는 자동차 운전대 뒤에서 발을 구르다 못해 보스톤을 떠나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경험을 했던 한인들이라면 결코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다.

매사추세츠 128번(95번)도로 이내에 거주하는 풀타임 근무 유권자중 3명중 1명은 도로 정체 및 대중교통의 정체로 이주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여론조사단체 >>7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보스톤-서울
직항항공권

항공권 \$1,198~

IACE TRAVEL
617.424.8956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Korea licensed
Muti -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wstarrealty.com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주택 | 콘도 | 커머셜
성실껏 도와드리겠습니다

www.BostonParkRealty.com
Tel: 617.935.3241 |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제21회 재외동포문학상 작품 공모

6월 14일까지 접수 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외동포재단은 2019년 '제21회 재외동포문학상 공모전' 작품을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접수 받는다.

재외동포재단이 전 세계 740만 재외동포들에게 한글 문학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한민족 재외동포 청소년들에게 모국어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하여 재외동포 문학 공모전을 진행해 왔다.

외교부가 후원하는 이번 올해 공모전은 청소년 글짓기 부문의 경우 '3.1 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관련 주제로 공모가 진행된다.

응모자격은 성인기준으로 거주국 내 시민권 영주권 취득, 또는 7년 이상 장기 체류한 재외동포이다.

청소년 부문은 거주국 내 시민권 영주권 취득,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한 재외동포 청소년이다. 초등 부문은 만 7세 이상 만 13세 미만, 중·고등 부문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다.

공모 부문과 주제에서 성인은 시, 단편소설, 체험수기 등이다.

청소년은 글짓기 부문으로 주제는 '3.1운동 정신과 나, 대한민국과 나, '쉽고 빠르게 읽는 3.1독립선언서' 감



상행,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관련 주제 등이 예시됐다.

부문별 원고분량을 보면, 성인은 시는 3-5편, 단편소설은 3편 이내 글자 수 1만6천자 내외, 체험수기 3편 이내 글자 수 1만자 내외 등이다. 청소년 글짓기는 3편 이내 글자 수 3천자 내외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코리안 넷 홈페이지(www.korean.net)에서 확인하고 관련서식도 다운로드 할 수 있

다.

시상내역을 보면, 시, 단편소설, 체험수기는 대상에게 300만원 상금과 상패 등 우수상, 가작 등에게 200만원, 50만원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한다.

청소년 글짓기는 최우수상에 100만원 상금과 상패 등을 수상하며, 참가 학생 수에 따른 한글학교 특별상도 수여한다.

bostonkorean@hotmail.com



2017년 국제선 기금 만찬 모습

국제선교회 연례 기금모금 만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국제결혼가정선교회(회장 채명희, 이하 국제선) 연례 모금만찬이 해버힐에 위치한 디버로스 평션홀(DiBurro's Function Hall)에서 4월 27일 토요일 6시에 개최된다.

국제선은 지난 23년 동안 매년 따뜻한 봄기운이 돌면 모금만찬을 개최해 뉴잉글랜드와 보스톤 한인들의 봄 추억을 만들어 왔다. 또한 이 추억과 함께 모은 기금으로 평화의 땅, 평화의집 헬터 구축과 2세 지원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채명희 회장은 "그동안 여러모양으로 보스톤 국제선교 지부들도

우시고 23년 동안 연중행사로서는 모금만찬 (평화의땅, 평화의집 헬터)를 위한 자리에 오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올해도 만찬의 참가비는 1인당 \$60이다. 문의는 채명희 회장 (978-828-5818)에게 할 수 있다.

일시: 4월 27일 2019년 오후 6시 \$60.00 per person.

장소: DiBurro's Function Facility, 887 Boston Road Haverhill, MA 01835

bostonkorean@hotmail.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대법, 센서스 시민권질문 삽입 쪽으로 무게

법관들의 이념 성향에 따라 판결 갈리면 삽입 승인
시민권 질문 삽입 판결시 6천5백만 이상 응답 줄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2020년 센서스 문항에 시민권 질문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 첫 심리를 시작한 연방 대법원은 이념적 성향에 따라 다른 의견을 내고 있어 시민권 질문의 삽입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미 공영라디오(NPR)는 4월 23일 진행된 대법원의 대정부 구두심리를 바탕으로 대법원이 이념적 신념에 따라 5-4로 나뉘어 트럼프 행정부의 논란 많은 시민권 질문을 센서스 문항에 삽입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설문지를 작성하고 있는 귀하는 미국 시민입니까?” 라는 시민권 질문 문항의 삽입은 내년 센서스에서 이민자들의 참여 판도를 크게 뒤흔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3명의 연방 지법 판사가 질문 삽입을 불허했었다.

대법원 구두심리에서 진보대법관인 소니아 소토마이어 판사는 노엘 프랜시스코 법무차관의 질문 삽입의 정당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센서스 응답자가 적어질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고 말했다. 같은 진보대법관인

엘레나 케이건 판사는 시민권질문 문항 삽입의 필요성에 대한 논증이 ‘억지로 꾸민 듯’ 하다고 꼬집었다.

보수대법관인 브렛 커버나흐, 닐 고서치 판사는 센서스를 관장하는 월버로스 상무부 장관의 재량임을 지적했다. 또한 과거에도 시민권 소지 여부를 묻는 질문이 존재했었다고 밝혔다.

인구조사 결과는 향후 10년간 각 주의 연방의회 의석 수 및 대통령 선거인 단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매년 8천 8백억 달러에 달하는 각 학교, 도로 및 정부 서비스 재정 분배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센서스 참여는 곧바로 일상 생활과 연관된다.

과거 민주당 공화당 정권에서 센서스 국장을 맡았던 6명의 전임 국장들은 시민권 질문 문항의 삽입은 정확한 센서스 결과 도출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해 왔었다.

전 연방 센서스 국의 부국장인 허먼 해버맨 씨는 “센서스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얼마나 많은 시민권자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센서스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정보를 잘 획득하는가” 에 있다고 강조했다.



연방 대법원 23일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질문을 삽입할 것인지에 대한 구두 심리를 시작했다. 이르면 6월께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센서스 국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시민권질문이 삽입될 경우 비시민권자 가정과 서류 미비 이민자들의 센서스 참여를 낮추게 할 것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센서스 국은 2020년 약 6천 5백명의 참여자가 응답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직접 조사관들이 일일이 방문해 조사하는 6월 이후에는 참여자가 훨씬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센서스 국은 센서스 용지 인쇄들이

유료 6월까지 대법원이 판결을 내려주기를 요청해 대법원은 6월까지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그러나 또 하나의 판결이 센서스와 인종차별 건으로 메릴랜드 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늦어질 수도 있다. 이 경우 최종적으로 10월 31일까지 판결이 완료되면 센서스 용지 인쇄가 가능하다.

센서스는 내년 1월 알래스카를 시작으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 산악회 정기 봄 산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산악회가 퀸지-밀튼에 위치한 블루힐(BLUE HILLS)로 5월 4일 토요일 정기 산행을 떠난다.

블루힐의 산행 거리는 왕복 9마일이고 산행시간은 6시간이다. 난이도는 5단계 척도법 중 3이다.

산행 준비물은 봄 산행으로 배낭, 등산화, 물, 간편 음식, Trekking Poles 등이다. 티셔츠 및 청바지 등 면으로 된 옷은 착용을 금지한다. 화비는 무료이며 블루힐 유원지(BLUE HILLS RESERVATION, 840 Hillside St Milton MA)에 오전 8시까지 개별 집결해야 한다.

산행 신청은 5월 2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해야 산행이 가능하다. 신청 및 문의는 617-780-9588 (김혁신)로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SAT Plus

SAT Plus Spring Schedule 2019

All Classes Starting March 16th(Saturdays)

Class	Time
SAT II MATH IIC	9:00AM - 11:00AM 3/16 - 5/25
SAT II Chemistry/AP Chemistry	11:30AM - 1:30PM 3/16 - 5/25
SAT II Biology/AP Biology	2:00PM - 4:00PM 3/16 - 5/25
SAT II MATH IC	5:00PM - 7:00PM 3/16 - 5/25

SAT Plus Summer Schedule 2019

July 2019

Class	Time
SAT I Prep	8:00 AM - 12:00 PM 7/8 - 7/26 Mon-Fri
Chemistry(Preview)	1:00 PM - 3:00 PM 7/8 - 7/29 Mon/Wed/Fri
Biology(Preview)	4:00 PM - 6:00 PM 7/8 - 7/29 Mon/Wed/Fri

August 2019

Class	Time
SAT I Prep	8:00 AM - 12:00 PM 8/5 - 8/23 Mon-Fri
SAT II Subject Tests (for August 24 test)	1:00 PM - 3:00 PM 8/5 - 8/23 Mon/Wed/Fri 4:00 PM - 6:00 PM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SATPLUSTUTORING.COM

TEL: 781-398-1881

393 Totten Pond Rd #101,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푸쉬킨의 시와 음악이 어우러져

푸쉬킨 탄생 220주년 기념 연주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픔의 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늘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다시 그리워지나니” 시인 푸쉬킨의 탄생 2백 20주년을 맞았다.

클래식 음악 연주 및 연구 단체인 Medtner Society of Korea(한국메트너협회)는 러시아의 대문호 푸쉬킨의 시를 바탕으로 한 연주회를 브루클라인 퍼블릭 라이브러리 허니맨홀(Hunneman Hall)에서 2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에 개최한다.

이 연주회에서는 탄생 220주년을 맞은 푸쉬킨의 러시아 성악곡들과 한국 가곡, 피아노 솔로곡 등이 연주된다. 한국메트너협회 회장 신해신 씨가 피아노를 담당하며 엘레나 민들리나(Elean Mindlina) 씨가 소프라노를, 나탈리아 메드베도브스카야(Natalia Medvedovskaya) 씨가 피아노를 담당한다. 연주회 입장료는 학생들에게 무료이다. 일반인의 경우 \$10의 기부를 받는다.

한국메트너 협회는 러시아 작곡가 니콜라이 메트너(1880-1951)의 음악을 연구하고 연주하는 단체로, 20세기 러

Sharing the Muse
The Pushkin Songs and more...

In celebration of the 220th anniversary of Alexander Pushkin (1799-1837)'s Birth

HAESHIN SHIN PIANO
ELENA MINDLINA SOPRANO
BATALIYA MEDVEDOVSKAYA COMPOSER-PIANIST

MAY 2, 2019 (THU) 6:30 PM
Hunneman Hall
Public Library of Brookline

Works by MEDTNER, SVIRIDOV, MEDVEDOVSKAYA, LEE, KIM, BRODSZKY

www.theconcert.com

시아 음악 및 다양한 레퍼토리를 관객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과 영국에서 활동해왔고, 지난 2월 (2019)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첫 한국 연주회도 가졌다.

(<http://ticket.interpark.com/Ticket>

/Goods/GoodsInfo.asp?GoodsCode=19000103)
일시: 5월 2일 목요일 저녁 6:30
장소: Brookline public library, Hunneman Hall
bostonkorean@hotmail.com

18 MAY

TICKETS \$45, available online: www.mbmm.org

이민자, 난민 돕기 자선 콘서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매사추세츠뱍티스츠다문화사역회(MBMM)는 매사추세츠에 거주하는 이민자들과 난민들의 미국에서 자립과 정착을 돕기 위한 콘서트를 5월 18일 토요일 렉싱턴 다이아몬드미들스쿨에서 개최한다.

《Women of the World》콘서트에서는 세계의 유명한 여류 가수들이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내용을 3개의 언어로 부르게 된다. 콘서트 후에는 카페테리아에서 리셉션과 사일런트 옥션이 진행된다. 콘서트 티켓은 \$45이며 www.mbmm.org에서 구입할 수 있다.

비영리단체 MBMM은 렉싱턴

다운타운에 위치하며 커뮤니티 내 삶의 질을 풍부하게 만드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이민자들과 난민들의 매사추세츠 재정적은 물론 자급자족, 커뮤니티 포용, 그리고 시민권 획득까지 돕고 축하하며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Women of the World Concert
Massachusetts Baptists Multi-cultural Ministries Inc., (MBMM), Benefit Concert

Saturday, May 18th 7:00-9:00 PM

Diamond Middle School

bostonkorean@hotmail.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617.871.1482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휴람 특별기 이벤트 나에게 노안이 왔다면?

박신진 원장님이 제안하는 40~50대를 위한 라식/라섹 수술 이제 휴람을 통해 눈의 불편함을 해결하세요!

- 휴람 만 종합검진 (예약: 소요시간 30~40분 / 고려비용: 14만 3000원)
 - 1) 휴람 예약 안함: 10만원 (예약비 2만)
 - 2) 휴람 예약 안함: 25만원 (예약비 2만)
- 노안 증는 노안성 백내장 수술 (1년 + 4개월 배액)
 - 1) 노안교정 백내장: 299만원 배액
 - 2) 다중초점 인공수정체 노안 백내장: 700만원
- 4060 노안 라식/라섹 수술 정액
 - 150만원 (프레임 정액 포함)
- 2030 라식/라섹
 - 130만원 (프레임 정액 포함, 연속검정 포함)

충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40~50대를 위한 라식/라섹이 필요한 경우?

- 목이와 입무릎 착상기회를 놓쳤다면...
- 인절과 돌번기 사육에 불편한 경우
- 휴먼티드 노안이 행해 된 경우
- 백내장과 함께 노안 교정을 원하실 경우

휴람 대표원장 박신진
1-844-DOHURAM (1-844-354-8728)
주소: 193, 3400 40th St, Lawrence, MA 01840
www.huram.com

플루 시즌 끝나자 틱 시즌 시작

야외활동시에는 벌레퇴치제 뿌려 집에 돌아오면 반드시 육안 점검 틱 아주 작아 주근깨 같아 보일 수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봄철 야외활동이 점차 증가하는 것과 관련 매사추세츠 보건부는 매사추세츠의 틱 시즌이 시작됐다며 틱 방지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라고 권고했다.

보건부는 해마다 4월부터 본격적인 틱 시즌이 시작돼 틱으로 인한 발병 신고가 증가하며 여름철에 피크를 이룬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 보건부는 올해부터 매달 틱 관련 보고를 온라인으

로 포스팅할 예정이다. 틱은 일반적으로 습기가 많고 그늘진 나무숲과 키가 크게 자란 풀숲에서 많이 발견되며 때로는 집 앞뒤마당에서도 발견된다. 가장 흔한 틱은 검은 다리의 디어티카도 그티들로 매사추세츠 전역에서 발견되며 각기 다른 병을 일으키는 균을 퍼트린다.

가장 많은 틱 관련 질병은 라임병, 베이브시오시스, 그리고 애나프락스모시

스 등이다. 이외에도 락키마운틴, 포와싼 바이러스 등 각종 질병이 유발되기도 한다.

케서린 브라운 주 전염병학자는 “틱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은 야외활동시 페르메스린이나 DEET 등의 퇴치제를 뿌리고 어른들과 아이들 그리고 애완동물들을 매일 틱 여부를 점검하고 틱을 발견했을 때 빨리 제거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적절한 벌레 퇴치제 (Repellant)를 피부와 옷 등에 뿌리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어린 유아에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틱이 신체에 옮겨가게 되면 발톱 사이와 무릎 뒤 사타구니 그리고 겨드랑이, 목 그리고 머리카락 끝자락, 귀 뒤 등의 장소에 붙어있는 경우가 많다. 틱은 아주 작아 기미나 주근깨 같아 보일 수도 있다. 틱을 발견했다고 해서 겁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으며 날카로운 끝을 가진 족집게로 가장 피부가깝게 대고 곧게 뽑아 올리면 된다.

틱에 물린 경우 자신의 1차진료의에게 연락해야 하며 틱에 물린 후 발진, 발열, 두통, 피로 그리고 근육통 등이 나타나는 경우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안보 토론회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재향군인회와 한국 사랑회(회장 이강원)는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관심사를 토론하는 안보토론회를 우번에 위치한 한인회관에서 5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 개최한다.

이강원 회장은 이메일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가 불안정한 가운데 우리의 모국은 북한의 핵과 군사력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며 “대한민국을 둘러싼 4대강국 속에서 우리는 어떤 외교적 선택을 해야 할까” 를 토론헬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한미동맹의 영향도 토론헬 될 전망이다.

보스톤 재향군인회는 관심있는 모든 한인들이 참여하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문의는 이강원(339-227-2470) 에게 할 수 있다.

일시: 5월 11일 토요일 2:00pm ~ 4:00pm

장소: 한인 회관 회의실(13 Campbell st, Woburn, MA, 01801)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영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정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김수정 Soojung Kim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콕 Andrew Koak 앤젤라럼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재류업체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보건부는 해마다 4월부터 본격적인 틱 시즌이 시작돼 틱으로 인한 발병 신고가 증가하며 여름철에 피크를 이룬다고 밝혔다



서울설령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령탕의 피전, 족발, 보쌈, 수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령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on Beacon Hill
155 Cambridge St, Boston
617.873.8880
SeoulFoodBoston.com



가주 순두부

캔모어 지점 그랜드 오픈

영업시간 : 오전10시 ~ 밤10시까지



Korean Gourmet Food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캔모어 지점
636 Beacon St.
Boston, MA 02215
(617) 936-4252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8540

과기협 2019 수학경시대회 50여명 참가

최수영(11년), 대니얼조강(10년) 총영사상
한국학교협의회 글짓기 수상과 중복 참가 저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과학기술자협회 뉴잉글랜드지부(이하 과기협)가 개최한 수학경시대회에 지난해와 유사한 48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50명대 참가가 새로운 현실로 자리잡았다. 예년에는 평균 100명이 참가했었다.

4월 8일 미주 전역에서 동시에 치러진 전국수학경시대회의 일환으로 열린 제 28회 뉴잉글랜드과기협 수학경시대회는 사상 처음으로 장소를

MIT에서 렉싱턴 소재 성요한교회로 옮겨 진행됐다.

정유진 회장에 따르면 이번 장소 변경은 MIT측에서 새로운 참가학생들의 특정 데이터를 요구하는 등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이뤄졌다. 성요한교회 변경으로 인해 신청해놓고 불참하는 학생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는 등 학부모들의 반응은 비교적 우호적이었다고 협회측은 전했다. 성요한교회는 주차 및 기타 편의성이 좋

다는 평가다.

과기협은 내년에 다시 MIT로 장소를 되돌릴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론은 내리지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MIT가 아닌 뉴튼의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현재 과기협의 수학경시대회를 돕는 자원봉사자들도 MIT 대학원생들 보다는 MCPHS나 노스이스턴 학생들이 더 많다고 정유진 회장은 전했다.

한편, 이번 경시대회에는 4학년에서 11학년 학생들이 학년별로 60분에서 90분 동안 시험을 치렀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어린이 글짓기 대회 수상식이 행사 시간대에 진행됨에 따라

2019 수학경시대회 수상자 명단

Award	LastName	FirstName	School	Grade
1	Christopher	Yoo	Dexter Southfield School	4
2	Ji Hoon	Bae	Baker	4
3	Alan	Herring	Countryside	4
1	Nathaniel	Peck	Daniel Butler Elementary School	5
2	Lauren	Kim	Nearly Elementary School	5
3	Benjamin	Ransley		5
Honor	Anthony	Lee	Pierce School	5
1	Christopher	Yoo	Diamond middle school	6
2	Sayan	Panda	Roderick Elementary School	6
3	Chase	McGarry	Ahern Middle School	6
Honor	JACK	KIM	DOVER-SHERBORN MIDDLE SCHOOL	6
Honor	Matthew	Jo	The Pike School	6
Honor	Ian S.	Lee	North Andover Middle School	6
1	Andrew	Song	Gordon School	7
2	Audrey	Chun	Jonas Clarke Middle school	7
3	Yunchan christopher	Rhee	Curtis middle school	7
1	Jason	Kim	Jonas Clarke Middle School	8
2	Jaeyong	Shim	The Pike School	8
3	Seo Yeon	Chun	Fay school	8
1	Junsung	Lee	Kent School	9
2	June	Kim	Wayland High School	9
3	Bonjune	Koo	St Peter Marian High School.	9
1	DANIEL JOH	KANG	BELMONT HIGH SCHOOL	10
1	Sooyoung	Choi	Lexington high school	11
2	Daniel	Jeon	Fessenden School	11
3	Nathan	Yoon	Sharon High	11



28년만에 처음으로 MIT가 아닌 장소인 성요한교회에서 13일 진행된 과기협 수학경시대회에서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있다

시상식은 생략하는 등 행사 규모를 축소했다.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김용현 총영사, 이강원 북미 한인교수협회(KAUPA) 회장 등이 참가 학생들을 격려하고 성적 우수자들을 시상하였다.

이날 대회에서 1등 총영사상은 Belmont High School에 DANIEL JOH KANG (10학년) 과 Lexington High School의 최수영 (11학년 공동

1등) 이 차지했다. 최수영 학생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총영사상을 받는 행운을 누렸다.

행사를 지휘한 과기협 뉴잉글랜드지부 정유진 회장은 “수학 경시대회는 전국규모대회기 때문에 지역에서 단독으로 개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며 “내년에는 행사가 겹치지 않아 더 많은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bostonkorean@hotmail.com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미국 두부 1위 풀무원, 보스톤 공장이 원동력

▶▶ 1면에 이어서

역원)를 달성해 전년 대비 11.1% 성장했다고 1월 9일 풀무원코리아 뉴스를 통해 밝혔다. 풀무원USA의 미국 두부 시장 점유율은 73.8%(2018년 12월 3일 닐슨데이터 기준)로 확고한 1위다. 풀무원 웹사이트에 따르면 조깅할 풀무원USA 대표는 "미국 두부 시장 전망이 밝다"며 "올해는 두부 매출을 12.3% 이상 증대시켜 연간 매출 1000억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소야를 앞세워 2018년 미국시장 압도적인 1위를 달성한 풀무원의 두부사업이 처음부터 전도양양했던 것은 아니었다. 1991년 미국현지법인을 설립한 풀무원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풀무원USA는 지난 2011년 24억원, 2012년 140억원, 2013년 311억원, 2014년 173억원으로 4년 누적 순손실이 649억원에 달했다. 미주법인의 부실로 기업 가치가 훼손되면서 2015년 상장을 계획했던 풀무원식품의 기업공개(IPO)도 무산됐다.

풀무원USA는 2016년 매사추세츠에 이어 위치 한 두부 브랜드 '나소야'를 인수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했다. 나소야 두부를 제조하는 비타소이로부터 두부사업분야 5천만달러(약 579억원)에 인수했다. 비타소이는 1979년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 상점 몇 곳에 처음 납품한 것을 시작으로 미국시장에 두부를 전파시킨 홍콩 기업. 특히 두부 브랜드 '나소야'는 미국 두부제품들 중 점유율 65%로 선두를 달리고 있었다. 매출규모도 약 5천만달러였다.

비타소이 두부사업 인수로 브랜드 파워와 더불어 미국내 2만여개 슈퍼마켓 유통망을 새로 확보. 미국 두부사업을 크게 확장시킬 교두보를 마련했다. 특히 보스톤 공장은 미국동부지역 공략에 핵심이었고 미 지역 진출의 전략적 기지역할을 담당했다.



보스톤에서 서쪽으로 약 50여분 운전해 가면 만나는 에이어(Ayer)의 나소야 본사 및 공장, 풀무원이 2016년부터 인수해 미국 두부시장 점령의 핵심 전략기지로 자리잡았다

나소야 브랜드로 변신한 풀무원은 주류 미국인 입맛에 맞는 두부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했다. 풀무원은 두부의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 한국을 중심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 3개국에서 글로벌 소이 연구개발(R&D)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 보스톤 운송업체에 따르면 "에이어 소재 두부공장으로 손님을 운송할 때 요청은 한국 사람이었지만 손님은 일본사람이어서 일본기업으로 생각했다"는 것. 연구소는 물론 일본 두부업체까지 진출해 있는 풀무원에 일본인들이 방문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LA 소재 연구소는 미국인의 입맛과 취향에 맞는 두부제품을 개발했다. ▲경도를 국내 두부보다 2~4배 높여 물성이 단단한 '슈퍼 펌 두부'(Super Firm Tofu) ▲비린 콩냄새를 없애고 소스를 넣어 구운 다양한 시즈닝 두부 등이 그것이다. 미국 슈퍼마켓에서 나소야 두부를 구입한 독자들이 쉽게 만나는 두부들의 특징이다.

나소야 인수 이후 성장세는 놀랍다.

5천만불 규모의 매출을 8천8백만불로 성장시켰고 시장 점유율 또한 10%나 늘렸다. 풀무원에 따르면 식물성 단백질 식품 트렌드 확산과 함께 미국 두부 시장도 전년 대비 9.3% 성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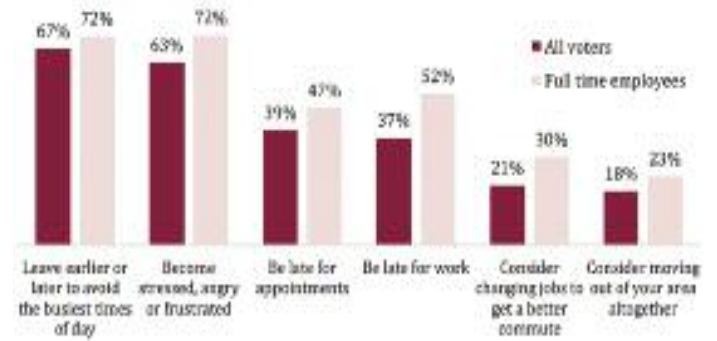
"미국 현지의 냉장유통온도 기준인 5℃(한국은 10℃ 기준)에 맞춰 제품을 개발하여 두부의 유통기한을 60일로 늘려 두부를 미국 전역에 유통하고 있는 것도 두부시장확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풀무원이 설명이다.

4월 25일 아침 매사추세츠 에이어 소재 풀무원 소유 나소야 본사에는 약 100여대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안내드스크에는 미국인이 근무하고 있었고 기술직 한인들과 일부 사무직 한인들이 눈에 띄었다. 풀무원 미국시장 점령의 심장고 같은 나소야 본사는 차별했다.

진출 초기 어려움을 겪고 적자를 경험했던 풀무원이 보스톤의 브랜드를 인수해 현지화에 성공하고 결국 시장 1위를 점령한 사례는 한국기업들의 미국진출에 커다란 시사점을 주고 있다.

editor@bostonkorea.com

Figure 2: Delays bring stress, tardiness, even thoughts of moving and changing jobs Q. In the past few months, have delays on the roads or public transportation caused you to...



지난 몇 달간 풀타임 근로자의 30%는 좀더 나은 통근 환경을 위해 이주를 고려했으며 25%는 아예 보스톤을 떠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균 45분 이상 걸리는 통근자들은 거의 51%가 직업을 바꾸거나 30%는 아예 떠나는 것을 생각했다

출퇴근지옥 보스톤, "떠나고 싶다"

▶▶ 1면에 이어서

매사추세츠(MassINC)가 2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몇 달간 풀타임 근로자의 30%는 좀더 나은 통근 환경을 위해 이주를 고려했으며 25%는 아예 보스톤을 떠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균 45분 이상 걸리는 통근자들은 거의 51%가 직업을 바꾸거나 30%는 아예 떠나는 것을 생각했다.

특히 지난 2016년 같은 MassINC 여론조사에서 약 14%의 응답 유권자들만 교통정체로 이주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비하면 교통 상황은 최근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티브 칼젤라 MassINC 회장은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절망도를 볼 때 이미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3월 15일부터 25일까지 1200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질문항목은 정책 전문가, 교통계획자들 그리고 사업주들로 이뤄진 위원회와 상담을 통해 만들어졌다.

여론조사에서 두드러진 항목은

풀타임 근로자의 72%가 자동차 정체와 대중교통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분노했으며 좌절했다고 밝혔다. 52%는 교통정체로 인해 지각을 경험했고 47%는 약속에 늦었다.

이번 조사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근로자들이 더 많은 불만을 토했으며 45분 이상 걸리는 장거리 통근자들이 더 많은 불만을 토했다.

특히 지난 3월 그레이터 보스톤의 출퇴근 교통정체가 미국내 1위로 발표된 것에 상당수가 반신반의했지만 실제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결코 이것이 잘못된 조사가 아니었음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교통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정책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분의 2 이상이 급박한 시스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단 21%만 현재 상태가 좋다고 답했다.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중"이라고 답하고 "향후 5년간 80억달러를 투입해 대중교통을 향상시키고 이와 유사한 양의 금액이 도로와 다리에 투자될 것"이라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즈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의뢰인에게 드리는 기본 서비스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크레딧 어슈런스
리포트 모니터링 서비스(1년)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팩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로, 현 점수 및 경리이후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장우석 변호사 매사추세츠 및 뉴욕 주 라이선스
CHANG & ASSOCIATES, P.C.
781.712.1706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형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프리스쿨러를 위한 섬머 캠프 가이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불과 몇 달밖에 남지 않은 여름방학을 계획할 시기가 되었다. 특히 유아들을 위한 여름 계획은 까다롭다. 호기심 많은 이 시기의 아이들은 하고 싶은 것이 많으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보스톤 지역에서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여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다. 마미포핀스가 뽑은 10가지 프리스쿨러용 섬머 캠프를 소개한다.

1. Newton Community Farm Sprouts : Newton

뉴튼 커뮤니티 팜은 세션당 15불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2세에서 유치원 사이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농장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캠프에 참여한 아이들은 닭에게 모이를 주고, 꿀벌에 대해 배우고, 다양한 식물들을 직접 맛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 매주 주제가 달라지며, 참석할 주와 출석일을 선택할 수 있다.

Newton Community Farm
303 Nahanton Street
Newton, MA 02459
617-916-9655

2. Summer in the City at Kingsley : Boston

백베이의 중심부에 위치한 킹슬리 몬테소리(Kingsley Montessori)는 어린이들이 여름 동안 다양한 관심사와 좋아하는 활동을 탐구할 기회를 제공한다. 자연, 스포츠, 예술, 음악, 엔지니어링, 모험 등의 주제로 매주 다르게 진행된다. 3세에서 12세 사이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Kingsley Montessori School

30 Fairfield Street
Boston, MA 02116
617-226-4900

3. Steve and Kate's Camp : Cambridge and Boston

스티브와 케이트 캠프는 케임브리지와 보스톤에 있으며 4세 이상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영화, 패션, 코딩, 음악, 제빵 등의 색다른 체험을 제공한다. 다른 캠프와는 다르게 일일 패스를 구입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패스는 환불받을 수 있다. 부리토, 미트볼과 같은 점심 식사가 매일 제공된다.

Steve & Kate's Camp-Cambridge
Friends School

5 Cadbury Road
Cambridge, MA 02140

Steve & Kate's Camp-Winsor
School

103 Pilgrim Road
Boston, MA 02215

4. Tenacre Day Camp : Wellesley

미취학 아동이 수영하는 법을 배우는 곳으로 오랜 명성을 쌓은 곳이다. 최근 개장한 수영장에서 일일 2회 수업을 통해 1:1로 진행되는 수업을 자랑한다. 수영 뿐만 아니라 각종 스포츠, 예술 및 공예, 요가 및 자연탐험 등의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며 18세 이상의 상담자의 감독하에 진행된다. 총 9번의 주간 세션을 제공하며 “해적과 인어”에서 “상어”에 이르기까지 각각 주제가 다르다.

Tenacre Day Camp
80 Benvenue St.
Wellesley, MA 02482



5. Passport at Cambridge Montessori : Cambridge

21개월에서 2.9세까지의 토들러들을 위한 타이니 토츠(Tiny Tots) 프로그램은 몬테소리 교실을 모델로 운영된다. 참여하는 아이들에게 일관성을 제공하기 위해 적어도 4주나 8주의 세션에 참여해야 하며 프로그램에는 수상 놀이, 자연 산책, 정원 가꾸기 등이 포함된다. 3세부터 4세까지의 어린이들은 필드트립, 수영, 팀경기 등의 1주 단위의 세션에 참여할 수 있다.

Cambridge Montessori School
161 Garden Street
Cambridge, 02138
617-492-3410

6. Summer Nursery Program at Waldorf School of Lexington : Lexington

월도프 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한 여름 프로그램으로 자연과 자율학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자연체험 외에도 예술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노래와 이야기 듣는 등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반나절 프로그램은 아직 종일 부모 곁을 떠나있기 힘든 아이들에게 적합하다. 울여름을 위해 학교에 새롭게 스프링클러와 패딩 풀이 구비되었다. 맑은 날이 아니더라도 밖에서 야외활동을 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

Waldorf School of Lexington
739 Massachusetts Ave Adams Building
Lexington, MA 02420

7. Dexter Southfield Junior Camp : Brookline

3.5세에서 4세, 4세에서 4.5세의 나이 별로 분류된 아이들은 드라마, 수영, 스

포츠와 같은 활동을 나누어진 그룹 아이들과 함께 하게 된다. 각 그룹은 카운슬러에 의해 지도되며 아이 4명당 카운슬러 2명과 1명의 스테프가 추가로 합류하여 최고의 재미와 안전을 보장한다. 참가비에 버스 운행, 재료, 스낵, 점심이 포함되어 있다.

Dexter Southfield
20 Newton Street
Brookline, MA 02062
(617) 751-3625

8. Summer@BB&N Kiddie Camp : Cambridge

활동적이며 관심사가 다양한 아이들에게 적합한 섬머 캠프로 4살 아이에게 수영, 예술, 드라마, 테니스를 비롯한 각종 스포츠를 경험하게 한다.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뷔페가 점심으로 제공된다. ▶▶9면으로 계속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항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마음대로 골라본다 \$14.99

5월 1일부터 Tbo Plus 상품의 가격이 \$14.99에서 \$24.99로 인상됩니다. 가입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은 4월 30일까지 서둘러 가입하세요!

Plus 상품 방송 3사 \$14.99
Premium 상품 방송 3사 / 중편 지상파 / 케이블 \$24.99
VIP 상품 방송 3사 / 중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4.99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NOW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KTBC / JTBC / JTBC골프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유아방송 / CBS(가톨릭방송) / ETN / 벵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8면에 이어서

Buckingham, Browne, & Nichols,
Lower School Campus
10 Buckingham Street
Cambridge, MA 02138-2227
9. Hill House Kiddie Kamp : Boston
3세부터 참여할 수 있는 캠프로 화
장실 훈련이 되어있어야 참여가
가능하다. 날씨가 좋으면 일주일 중 이
틀을 테디 에버솔(Teddy Ebersol)
의 레드 삭스 필드(Red Sox Fields)
와 알폰드 스프레이 데크(Alfond
Spray Deck)에서 물장난을 치며 지
내게 된다. 조수 웅덩이로 견학을 가
거나 마술쇼를 하는 등의 다채로운
활동을 제공하며 이 외에도 게임, 공
예, 노래부르기 등이 활동을 하며 야
외생활을 즐기게 된다.

Hill House
Fiedler Field
Boston, MA
10. Drumlin Farm Camp : Lincoln
and Sudbury

4살에서 18살까지의 아이들을 대
상으로 진행되는 매스 어더본 드럼
린 팜 캠프는 링컨과 서드버리의 두
곳에서 운영된다. 링컨의 경우 프리
스쿨러들은 반나절 혹은 하루종일
진행되는 2주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으며 농장과 자연보호구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게된다. 서드버리
에서 진행되는 캠프는 3일동안 진행
되며 동물 탐구에 초점을 맞춘 주제
로 진행된다.

Drumlin Farm-Lincoln
208 South Great Road
Lincoln, MA 01773
Drumlin Farm-Sudbury
680 Hudson Road Assabet River
National Wildlife Refuge
Sudbury, MA 01776
sun@bostonkorea.com



'포트나이트' 게임, 3-4학년 남학생에 치명적인 악영향

스쿨버스안 3-4학년 이야기는 모두 <포트나이트>로 귀결
게임몰두로 과다한 체중감소, 부모들 가정불화까지 초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세벽 기
자 = 게임 '포트나이트' 중독의 심
각성이 계속 환기되고 있다. 비디오 게
임을 좋아하는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잠도 안자고, 학교도 가지 않고,
다른 활동도 하지 않는다. 심지어 게임
시간을 벌기 위해 스포츠도 하지 않는
다” 고 마이클 리치 보스톤칠드런스
병원 소아과의 및 상호미디어 및 인터
넷질병클리닉 소장은 '포트나이트'
중독에 대해 밝혔다.

'포트나이트' 가 발매된지 약 1년
반가량이 지난 지금 수많은 아이들이
게임 중독을 끊기 위해 의료시설을 찾
고 있다. 일부는 너무 많은 체중을 잃
어 의사들은 다른 질병을 의심하고 여
러 진료를 하는 등 시간을 허비하는 경
우도 있다.

가족들에게 주는 스트레스도 엄청

하다. 부모들은 누가 처음 '포트나이
트' 게임을 허락했는지, 어떻게 대처
할 지를 두고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
다 싸움으로 번져 카운슬러를 찾는 경
우도 있다. 한 심리치료사는 포트나이
트가 만드는 문제는 마약에 중독된 가
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유사하다고 지
적했다.

아이들이 비디오 게임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에 학부모들이 우려
하는 것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하지만 기술 발달로 게임이 더 정교해
지고 상호 의사소통을 통한 게임을 할
수 있게 해 더욱 빠져들게 만들면서 통
제도 어려워지고 있다.

한 전문가 “아이들은 아직 뇌의 발
달이 불균형적이 때문에 다양한 보상
메커니즘에 아주 취약하다. 포트나이
트는 여러가지 구성과 공동 상호작용
을 통한 사회생존활동 요소가 결합되

어 있어 뇌를 자극해 더 빠져들도록 하
고 있다” 고 밝혔다.

포트나이트는 '마인크래프트' 와
'더헝거게임' 을 섞어 놓은 것에 비
교되는 게임이다. 현재 약 2억명이 이
게임을 하고 있다. 이 게임은 백명이
한 섬에 투하된다. 섬을 돌아다니며 무
기를 발견해야 하고 집, 도로, 바닥을
구성할 재료를 발견해 다른 게임 플레
이어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게임이 진행될수록 전장은 점차 좁
아지고 적들을 좀더 가까이에 두게 된
다. 이 같은 전투를 개인 또는 팀으로
해야하며 마지막에 한 팀 또는 개인 만
이 생존하게 된다. 무료로 가입하지만
자신이 확보한 무기를 그대로 간직하
기 위해서는 돈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무기를 구입하기 위해서도 돈을 써야
한다.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의 68%가 손
도끼, 방호복, 댄스무브 등을 구입하며
평균 \$84.67을 게임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브루클라인 거주 소년은 아버지

의 크레딧카드를 훔쳐 게임에 수천불
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이 학생의
엄마는 “착하던 아이가 화가 가득한
반항아가 되었다” 고 털어냈다. 이 소
년은 6학년 때 브루클라인 공립학교에
서 사립학교로 전학하면서 이같은 게
임에 빠져들었다. 친구가 없던 그는 포
트나이트를 통해 친구를 만들게 된 것
이다.

게임이 절정에 치달아 가자 그는 외
출도 않고 게임만 했으며 캠프를 가는
것도 거부하고 심지어는 생일 축하 가
족 외식도 거부했다. 가족의 뉴햄프셔
여행 중 스마트폰을 차안에 두고 잠귀
놓자 그는 해머로 차량의 유리창을 부
수고 게임에 이어갔다. 결국 병원에 입
원해 중독 치료를 받은 끝에 게임에 대
한 끈을 놓게 됐다.

13세의 이 학생은 “아이들은 이제
포키만 카드에서 포트나이트로 열광
하는 것이 바뀌었다. 3-4학년의 아이
들이 스쿨버스 안에서 이야기하는 모
든 것은 '포트나이트' 뿐이라고 지
적한다. hsb@bostonkorea.com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보톡스 시술합니다”

보톡스 무료 상담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스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김동원치과
DongWon Kim DMD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THE FACE SHOP
NATURAL STORY

The Face Shop 입점!

HAPPY
Mother's
Day

COCO화장품이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후 기품세트

F&P Grapefruit 바디 듀오 세트, 진유3종 여행용 세트 증정



\$220 Plus Tax

\$80 Value

후 화현 2종세트

화현 6종 여행세트 증정



\$220 Plus Tax

\$137 Value

후 비첩 자생에센스 2종세트

화물2종 여행세트, 진유3종 여행용 세트 증정



\$185 Plus Tax

\$125 Value

후 화물2종세트

공진향 폼클렌징 기획세트, 화물4종 여행용 세트 증정



\$300 Plus Tax

\$245 Value

오위 더 퍼스트 4종 세트

더 퍼스트 골드 앰플 20ml 증정



\$280 Plus Tax

\$175 Value

오위 프라임 어드밴서 앰플 2종 세트

F&P ALO Ocean Flower 바디 듀오 증정



\$130 Plus Tax

\$20 Value

오위 에이지 리커버리 4종세트

에이지리커버리 5종 여행세트, 스트라이프 파우치 증정



\$170 Plus Tax

\$80 Value

오위 미라클 4종세트

미라클 크림 20ml, 미라클 앰플 마스크 2장 증정



\$140 Plus Tax

\$50 Value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H 마트 안)

8년 동안 MA주 인구 34만명 증가

보스톤 지역 미국 10번째 인구 많아 미국 남부, 서부에서 인구 크게 증가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최근 발표된 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그레이터 보스톤을 포함한 대다수의 매사추세츠 지역에서 2010년부터 2018년 사이에 인구가 증가했다. 특히 그레이터 보스톤 지역은 미국에서 10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주에 발표된 연방 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보스톤이 포함되어 있는 서퍽 카운티는 2010년에 인구가 722,190명이었으나 2018년에는 807,252명으로 늘어났다. 우스터 카운티 역시 인구가 대폭 증가하여 798,383명에서 830,839명으로 증가했다.

에섹스 카운티의 인구는 743,081명에서 790,638명으로 늘어났다. 매사추세츠 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미들섹스 카운티는 150만 3천명에서 161만 4천명으로 인구가 늘었다.

센서스는 그레이터 보스톤 도심 지역을 보스톤-캠브리지-뉴턴까지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그레이터 보스톤 지역의 인구는 455만명에서 487만 5천명으로 인구가 증가했다. 미국에서 인구가 가

장 많은 곳은 뉴욕시로 약 2천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로스앤젤레스가 1,330만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매사추세츠 주의 모든 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한 것은 아니다. 2010년부터 2018년 사이에 반스타블, 버크셔, 프랭클린 카운티의 인구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특히 케이프코드 지역은 학교에 다니는 연령대의 인구가 대폭 줄어 향후 노동 인력과 지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그레이터 보스톤 지역의 인구는 455만명에서 487만 5천명으로 인구가 증가했다

있다. 매사추세츠 전체를 살펴봤을 때는 인구가 8년 동안 656만명에서 690만명으로 늘어났다.

미국 전체적으로는 남부와 서부 지역이 인구 증가를 이끌었다. 텍사스의 달라스 인근 지역은 도심 지역 중에서 신규 주민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이다. 이 지역은 2017년 한 해 동안에만 131,767명이 늘어났으며, 2010년 이후 8년 동안 1백만명 이상 인구가 증가했다.

센서스 자료는 전체적인 수치가 먼저 공개되었으며, 구체적인 지역별, 연령별, 성별, 인종에 따른 자료는 차후에 공개될 예정이다.

jsi@bostonkorea.com



폐협회는 공기가 안 좋아지는 가장 큰 요인으로 기후 변화와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배기 가스를 꼽았다

MA주 공기 작년보다 나빠져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의 대기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의 공기는 작년과 비교하여 나빠졌다.

미국 폐협회에서 매년 발간하는 “공기의 상태” 보고서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의 12개 카운티 중 8개의 카운티에서 오존 농도가 높아 공기 상태가 안 좋은 날이 작년보다 더 많았다.

폐협회의 보고서는 인간의 폐와 심혈관계 건강에 안 좋은 스모그와 그늘음 수치를 계속 기록해 왔다. 햄

턴, 햄프셔, 반스타블, 브리스톨 카운티는 스모그 수치가 계속 높아져 공기 상태가 가장 안 좋은 F를 기록했다. 서퍽, 우스터, 플리모스, 듀크스 카운티는 작년에 공기 상태가 C등급이었으나 D로 떨어졌다.

폐협회는 공기가 안 좋아지는 가장 큰 요인으로 기후 변화와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배기 가스를 꼽았다.

폐협회의 보고서는 미국인 10명 중 4명이 건강에 좋지 않은 공기를 마시면서 살고 있다며, 건강을 고려할 때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jsi@bostonkorea.com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료,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dentallexington.com
www.ico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자!

집장만
패밀리 프로텍션
모든걸 한번에!!

집장만 준비하는 성인
주택용자

모기지 리파이낸스 **의료보험**

생명보험 동상대출
나의노후? **케쉬아웃 리파이낸스**

연금보험
모기지 프로텍션
보험 최적의 **사고보험**

모기지 & 종합보험 mlee@mbamortgageco.com

마이클 리 컨설팅 978.314.8818

2 Adams Place, Suite 410 | Quincy, MA 02169

자본주의가 나라 망친다 미 엘리트들 자각과 반성

로 칸나 의원 "사회주의자 샌더스 지지한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선 '자본주의 반성수업' 인기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자본주의가 나라를 분열시키고 있는 불평등과 분노의 원인이라는 자각이 미국에서 일고 있다. 자본주의의 미래가 대통령 후보들의 '화두'로 자리잡았고 수년 전만 해도 미국이 믿고 있던, 기업이 성장해 그 과실을 사회가 나눠가진다는 가치에 균열이늘어가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1일 분석했다.

WP는 자본주의에 의해 막대한 부를 쌓은 억만장자들까지도 자본주의의 폐해를 우려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들이 위기감을 갖게 된 것은 미국 자본주의의 약점을 드러낸 2008년 금융 위기가 시작이라 볼 수 있지만 더 확실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그것으로 드러난 일반인들의 억눌린 분노를 실감하면서였다.

지난해 12월 뉴욕주 이타카에 자신의 이름을 딴 클라르만 홀을 연 미국 투자가 세스 클라르만 바우포스트그룹 최고경영자(CEO)는 개관식에서 (부유한) 청중들에게 "가능한 한 적은 돈을 주고 고용인들을 부려먹거나, 고용인들과 함께 당신이 열심히 일하는 것, 좋은 노동 조건을 유지하거나 가혹한 조건을 만드는 것은 당신의 선택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자본주의에 대해 어려운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면(고찰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 시스템을 비난하면서 무분별하게 뜯어고치려는 이론가들로부터 질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로부터 불과 5개월이 지나 대통령 후보 토론에서 후보자들은 몇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관세, 재산세, 기업지배 구조 변화에 대한 입장을 표방하고 나섰다.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의 레베카 헨더슨 교수는 가장 인기있는 수업은 '자본주의 재이미지화'(reimagining capitalism)라면서, 7년 전에는 불과 28명이 이 강의를 들었지만 현재는 300명 가까이 수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수는 해가 갈수록 학생들의 기업과 정부에 대한 태도가 점점 냉소적이 되어간다고 밝혔다. 또 이들 학생 가운데 수십명은 방학 동안 아난드 기리드하라다스의 '승자독식: 세상을 바꾸겠다는 엘리트의 가식'을 읽었다고 전했다.

'승자독식'은 미국의 억만장자 계급을 공격하면서 미국의 자본가들이 그들의 부와 창의성을 이용하여 사회 계층 간 분열을 가져온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주장하는 책이다.

기리드하라다스는 클라르만홀에서도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를 겨냥해 "페이스북이 전염병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비꼬았고, 빌 클린턴이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대의 관념인 '실리콘밸리의 혁신이 낡은 체계를 무너뜨리고 자본주의 과실을 널리 나눌 것'이라는 관념을 통렬히 비난했다. 그는 하워드 슈츠 스타벅스 CEO를 비난해 대선 출마를 좌절시키기도 했다.

민주당 하원의원인 로 칸나(캘리포니아) 의원은 기술기업들이 미래를 창

조할 것이라는 낙관주의가 있지만 실은 이들 기업들이 자본주의 붕괴에 일조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자각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즉 디지털 혁명은 기술 기업들이 큰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장 없이도 거대한 글로벌 기업을 건설할 수 있게 해주었지만 그 결과 기술 기업이 성장할수록 더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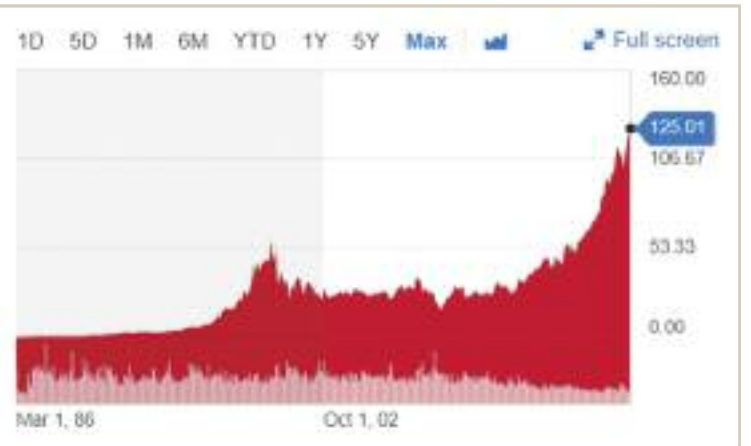
그래서 그는 미국이 점점 인종적으로 다양해지고 백인들이 우월한 지위를 빼앗기면서 인종적 긴장에 의한 분열이 극심해지고 있다고 보는 많은 민주당원들과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칸나 의원은 인종이 아닌 자본주의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득불균형 악화와 기회의 부족을 문제로 드는 그에 대해 인종적 분노를 과소평가한다는 비판도 있다.

칸나 의원은 인종 차별 문제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처럼 국가의 분열을 주로 자본주의 단점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았다. 그는 샌더스 의원의 주장에 모두 동의하지는 않지만 지금으로서는 그가 찾을 수 있는 최고의 해결책이라면서 그를 지지하고 있다.

ungaungae@news1.kr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이후 MS 주가 추이

마이크로소프트도 시총 1조달러 클럽 가입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마이크로소프트(MS)도 결국 시총 1조 달러(1157조) 클럽에 가입했다.

MS는 24일 장 마감 직후 실적 발표에서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 시간외 거래에서 마침내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다.

미국 기업 중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한 기업은 애플, 아마존뿐이다.

MS는 이날 장 마감 후 실적 발표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호조에 힘입어 분기 순이익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MS는 회계연도 3분기(1월 1일

~3월 31일) 순이익이 8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9% 늘었다고 밝혔다. 주당순이익은 1.14달러로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인 1달러를 웃돌았다. 매출은 30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MS의 주가는 급등세를 보였다. MS의 주가는 정규장에서 3.2% 상승한데 이어 실적발표 후 시간외거래에서도 4.4% 급등,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섰다.

MS는 견조한 실적성장에 힘입어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30% 정도 상승했다.

sinopark@news1.kr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을 사시거나 파실때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해 일 하겠습니다.





집을 사고 팔때 언제든지 승진(GINA)과 승원(PETER)을 찾아 주세요.
 TEL: 978.866.3248(최승진), 617.780.7839(주승원)
 thepeterginateam@gmail.com



미, 25년만에 최악의 홍역 잘못된 정보가 확산 키웠다

올해에만 22개주에서 695명이 홍역 확진 판정 '홍역 백신' 자체증 유발...홍역, 암·습진 예방에 도움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에서 25년 만에 가장 많은 홍역 환자가 발생했다. 올해에만 홍역 판정을 받은 경우가 700차례에 근접했다. 백신에 대한 부모들의 잘못된 정보가 확산을 키웠다.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4일 오후 기준으로 올해에만 22개주(州)에서 695명의 사람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는 지난 1994년 93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한 이후 가장 많은 수로 올해가 8개월이나 남은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환자의 약 4분의 3은 뉴욕주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브루클린과 로클랜드 카운티에 위치한 초등학교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많이 발생했다. 그들 대부분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

공중 보건 전문가들은 미국 내 일부 지역사회에서는 (백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퍼져 예방 접종률이 매우 낮다며 홍역과 볼거리 등의 백신이 자체증과 연관되어 있다는 등의 잘못된 정보가 소셜 미디어 등에서 떠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등학교와 유대인 사회의 리베들은 백신을 반대할 종교적 근거가 없다며 신도들에게 예방 접종을 받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인터넷이 거의 도입되지 않은 곳까지도 백신에 대한 잘못된 정



홍역 백신

보가 침투했다.

브루클린 인근 초등학교와 유대인 지역 사회에서 소아과 의사로 일하는 조지프 카플로비츠 박사는 "지역사회 내 반(反)백신 단체들이 잘못된 정보를 많이 퍼뜨리고 있다"며 "그 중에는 백신에 수은이 포함되어 있어 자체증을 유발하고, 홍역 자체가 암이나 습진 등에 안 걸리도록 한다는 정보도 있다"고 말했다.

과거 로스앤젤레스(LA) 공중보건을 담당했던 조너선 필딩 박사도 "많은 부모들이 (예방접종을) 두려워한다"며 "아이들에게 그렇게 많은 예방접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은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부모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

이 사실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홍역은 매우 전염성이 강한 질병으로 기침이나 재채기 등 공기를 통해서도 확산될 수 있다. 이에 CDC는 어렸을 때 홍역을 앓은 이들을 제외하고는 1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방 접종을 받을 것을 권하고 있다. 홍역을 앓은 사람은 면역세포를 보유하게 된다.

1960년대 나온 홍역 백신은 안전하고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백신이 출시된 이후 미국에서는 지난 2000년 홍역이 거의 모두 사라진 것으로 간주되었다가 지난 2014년 다시 창궐해 667명의 환자가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yellowapallo@news.kr

학자금 대출 갚지마라 진보투사 워런의 대선 승부수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6400억달러(731조원) 규모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겠다"

미국 민주당의 '진보 투사'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이 2020년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승부수를 내걸었다.

워런 의원이 21일 '미디엄'을 통해 발표한 학자금 대출 관련 공약은 연 소득이 10만달러 이하인 가구에 소속된 모든 이들의 학자금 대출액에서 5만달러를 감면해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소득이 10만달러를 넘을 경우엔 초과분 3달러마다 감면액이 1달러씩 낮아진다. 이를테면 연소득이 13만달러일 경우 5만달러보다 1만달러 적은 4만달러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소득이 25만달러 이상인 가구부터는 수혜 대상이 안 된다.

워런 의원은 이 공약이 현실화되면 현재 학자금 대출을 부담으로 안고 있는 미국인 4500만명 중 75% 이상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워런 의원은 정책 자문을 맡았던 브랜디스대학의 경제분석 연구진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 공약을 통해 아프리카계와 라틴계 국민들의 부를 증진하고 인종간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힘들게 일해서 이미 학자금 대출을 갚아왔거나 아예 대학을 가지 않은 이들에게는 이 정책이 불공평하게 작용할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 한 누리꾼은 자신의 트위터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연소득 10만달러 이하인 모든 가구에 현금 2만5000달러를 지원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아프리카계와 라틴계 학생들은 아시아계와 백인들에 비해 대학 진학률이 낮다는 점에서 정책의 수혜 대상이 예상과는 다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미국인들의 학자금 대출액은 총 1조4600억달러 규모에 달한다.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이렇게 막대한 학자금 대출액이 2020년 대선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후보들이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유권자들의 중요한 판단 기로가 될 것으로 봤다.

남아있는 학자금 대출 상환액을 감면해주겠다고 나선 대선 주자는 워런 의원 이외에도 카말라 해리스(민주·캘리포니아) 상원의원과 코리 부커(민주·뉴저지) 상원의원, 베토 오로크 전 텍사스주 하원의원 등이 있다. 또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상원의원과 털시 개버드(공화·하와이) 하원의원의 교육 정책은 학자금 대출 상환액 감면보다는 대학등록금 면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pasta@news1.kr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확

막힌 곳을 **확** 뚫어드립니다



부엌, 목욕탕 리모델링 전문

WATER HEATER, BOILER
HEATING, FAUCET

www.massdrain.com | massdrain@gmail.com

617.645.6146

형제 떡집



GRAND RE-OPEN

축 재개업

영업 시간

딜리버리: 상황에 따라 결정됨
픽업: 상황에 따라 결정됨
주문: 일주일 내내

STORE: 978.391.4695
CEL: 978.343.6080
CEL: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중,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에 중동 혼란 악화 비판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이란산 원유 수입에 대한 한시적 제재 예의를 더는 연장하지 않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중국이 "중동 지역 혼란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23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경향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의 일방적 제재 시행과 이른바 확대관할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 대변인은 이어 "미국의 관련 움직임은 중동 지역 및 국제 에너지 시장의 혼란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미국이 책임 있는 태도로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백악관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에 대한 한시적 제재 면제 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2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에서 미 정부는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 적용의 예외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치를 5월 초 만료 이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중국, 일본, 대만, 인도, 이탈리아, 그

리스, 터키 등 8개국은 내달부터 이란산 원유를 수입할 수 없게 됐다. wonjun44@news1.kr

미중 무역협상 5달 6초 타결?, 막바지서 미 협상단 30일 방중

라이트하이저·므누신 30일 방중, 류허 내달 8일 답방 미국 '메모리얼 데이' 맞추려면 류허 답방때 타결해야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협상이 오는 30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미국 백악관이 23일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30일 열리는 무역협상을 위해 베이징으로 갈 예정이라고 밝

혔다. 또 중국 측 협상단을 이끄는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내달 8일 미국 워싱턴DC로 와서 더 많은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해 "다음 주(미중 협상단)의 논의 주제는 지적재산권과 강제 기술이전, 비관세 장벽, 농업, 서비스, 구매, 그리고 약속 이행 등 무역 이슈

라고 덧붙였다. 지난 1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중 무역협상 팀이 앞으로 두 차례 더 대면 회담을 갖고 5월 말 늦어도 6월 초까지는 양국 정상이 무역협상문에 서명하는 일정을 짜고 있다고 보도했었다. 특히 미국은 우리의 현충일에 해당하는 메모리얼 데이에 서명 일정표를 맞추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WSJ는 부연했다. 이 일정에 맞추려면 양국은 류허 부총리가 방미하는 8일째 무역협상 최종안을 마련해야 한다. pasta@news1.kr

머스크, 테슬라 자율주행 '로보택시' 내년 선보인다

소유주가 차 빌려주고 테슬라가 택시 운행 삼성전자 생산 완전 자율주행용 컴퓨터칩도 소개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업그레이드된 무인자동차 기술을 선보이면서 자율주행차 택시인 테슬라 '로보택시'를 내년까지 배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이날 투자자들에게 회사 전략을 소개하면서 소유주가 차량 공유에 동의할 경우 자율주행 전기차를 빌려줘 택시로 운행하는 로보택시를 내년에 도입하겠다고 했다. 우버, 에어비앤비(Airbnb)와 유사한 개념으로, 차량 공유와 택시를 결합해 테슬라와 차 소유자가 이익을 나누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머스크 CEO는 "내년 자율주행차인 로보택시(의 도입)에 매우 자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이렇게 하면 차량의 기본적인 효율성이 5배 증가한다고도 했다.

테슬라 차량은 이미 부분적 자율주행이 가능한 상태. 하지만 완전한 자율주행으로 가는 길에는 법적·규제적 장애물이 상당하다. 머스크 CEO는 자율주행 택시에 대한 규제 당국의 승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머스크 CEO는 로보택시 계획에 앞서 먼저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담은 컴퓨터 하드웨어를 소개를 소개했다. 또 개발 중인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공개했다. 완전 자율주행

용 컴퓨터 칩인 이것은 테슬라가 설계한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생산된다. 자율주행차가 수집하는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이 칩에 대해 머스크 CEO는 "최고의 가용성을 가졌으며 자율주행차의 이정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칩을 전에 설계해본 적이 없는 테슬라가 이를 하는 것은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이는 일어났다"고 말했다. 신형 칩은 테슬라의 모든 차량에 장착돼 자율주행차를 효과적으로 운전시킬 수 있게 소프트웨어와 신경망 성능을 개선시키는 일을 맡는다.

머스크 CEO는 "생산되는 모든 테슬라 자동차는 자율주행에 필요한 하드웨어를 다 갖추고 있다. 필요한 것은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테슬라도 다른 업체처럼 일부는 시뮬레이션에 의존하기도 하지만 실제 세상은 이상하고 복잡해 테슬라처럼 도로 주행 중 차량 데이터를 사용하는 접근 방식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라이다 시스템에 대한 비판도 내놓았다. 그는 AI를 기반으로 한 신경망 기술이 경쟁 기업들의 광펄스를 기반으로 하는 라이다 시스템보다 낫다고 주장했다. 라이다는 레이저를 목표물에 비춰 사물과의 거리 및 다양한 물체를 감지하는 기술이다. ungaungae@news.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2019 전국 수학 경시대회

주최 :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KSEA (Korean-Americ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2019 전국 수학 경시대회를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 명단:

Mathworks, 현대 자동차, Nuance, 시민 협회, NAKS-NE,
한글학교, 예술인 협회, 필하모니아, 성낙호, 서울대 미주 동창회



크라우저 &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개인상해법 전문

- ✓ 전문인력 취업비자(H-1B)
- ✓ 투자비자(E-2)
- ✓ 주재원 비자(L-2)
- ✓ 투자이민(EB-5)
- ✓ 특기자 비자(O-1, P-1)
- ✓ 가족초청이민
- ✓ 단기연수원비자(H-3)
- ✓ 시민권 신청
- ✓ 취업이민
- ✓ 추방재판
- ✓ 교수/연구직 이민
- ✓ 개인상해(교통사고)



▶ **BOSTON Office** Tel. 617-566-7979

1309 Beacon Street Suite 300 Brookline, MA 02446 Fax. 617-566-7982

▪ Email : info@stevesuh.com ▪ 홈페이지(국문/영문/중문) : stevesuh.com / suhlawyer.com

▶ **MIAMI Office** ▪ Tel. 305-372-7776 ▪ 28 W Flagler St Suite 330 Miami, FL 33130

문의장 오신환 사보임 승인...오 · 한국,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문의장 병상에서 오신환 의원 사보임 결재...채이배로 교체 못 · 한국 "의회폭거" 반발...가처분신청 및 권한쟁의심판 청구

(서울=뉴스1) 최중무, 이형진, 이균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반대하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결을 승인한데 대해 바른미래당 내 패스트트랙 반대파는 물론 자유한국당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당장 사보임 당사자인 오신환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자유한국당 역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입원 중인 서울 성모병원에서 국회 의사과로부터 사보임계 신청서 접수를 보고 받고 사보임을 허가했다.

이에 바른미래당 내 패스트트랙 반대파들은 한 목소리로 문 의장을 비판

했다. 유승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신환 의원 본인이 사보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는데 당사자 말을 듣지 않고 국회법 위반 행위를 의장 스스로 저지른 것"이라며 "국회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의장이나 손학규대표, 김관영 원내대표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모든게 문재인 정권 하수인을 하기위한, 민주당 2중대를 하기위한 짓이라면 이분들은 정말 역사에 광장히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오 의원의 사보임 여부를 놓고 김관영 원내대표와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해 "의원총회에 24명이 있었다. 저도 여러번 직접 물었고, 김관영 원내대표가 직접 대답했고, 모든 사람

이 같이 들었고, 손학규대표도 생생하게 들었다"며 "당 대표와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데 두분 다 정치할 자격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오신환 의원은 "의회주의 폭거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중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들어오게 하고 다른 뒷구멍으로 의사국장을 만나 결재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의장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도 오 의원 사보임 승인과 관련한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

최교일, 김성원, 정점식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허가한 국회의장의 허가 처분은 명백히 국회법 제48조6항을 위반해 무효의 처분"이라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앞에서 문희상 의장의 사개특위 사보임 허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하태경, 정병국, 유승민, 오신환, 이혜훈 의원

판 및 효력정지가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규정이 너무나 명백하다. 임시회기 중 사보임을 할 수 없도록 작년 법을 개정했고,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 외에는 사보임을 할 수 없도록 했다"며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국회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해 허가한 것은 법률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문 의장이 이날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승인하면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오후부터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물론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는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결사적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회의 진행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ykjmf@news1.kr

나경원, 문의장 임이자 의원 신체접촉 한국당 능멸 · 모욕

"문 의장 물러나야 마땅...사퇴 촉구, 고발도 할 것" 이종배 의원 "병원간임 의원 멘탈 붕괴 호소...입원수속 중"

(서울=뉴스1) 김민석, 이균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항의하는 임이자 한국당 의원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신체접촉을 한 것에 대해 "여성 의원, 남성 의원을 떠나서 한 마디로 능멸 · 모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당은 법률검토 후 문 의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나 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 긴급 의총'에서 이같이 주장한 뒤 "국회의장은 임 의원을 능멸하고 모멸했을 뿐 아니라 한국당을 능멸하고 모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대표는 "한국당에서 가장 헌신적으로 일하는 임 의원(에게 벌어진 일)은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문 의장은 그자리에 있을만한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가 안 돼 있다. 결국엔 의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장에게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보임 건 등에 대해 중립적인 국회운영을 해달라고 찾아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책임 있는 답변을 회피한 채 자리를 모면하기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원장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동료의원 성추행한 문희상 국회의장 사퇴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나 대표는 "한국당은 임 의원에 대한 추행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며 "다시 한번 의장 사퇴를 촉구하고 이와 관련된 법적 대응은 검토 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임 의원과 병원까지 동행하면서 들은 임 의원의 심정을 전했다. 그는 임 의원이 부적절한 신체접촉에 따른 모멸감으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쇼크도 받아 심각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임 의원은 보통기가 세고 대가 센데도 불구하고 평소와 다른 모

습이어서 물어보니 자기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서 멘탈이 붕괴됐다"고 했다"며 "손발에 힘이 쭉 빠졌고 뒷골이 땅긴다. 이런 모멸감은 처음 느껴본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어 "병원 진찰을 받아보니 (임 의원의) 혈압도 상당히 높게 나왔다"며 "의사가 여러가지 문진을 한 결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 입원해야 한다고 한다. 지금 입원 수속 중이다"고 덧붙였다.

ideaed@news1.kr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박지원, 한국당 국회의장 성추행 공격...정치판이 X판 됐다

"황교안, 운동권식 과거 투쟁 똑같이 답습"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5일 "우리 정치판이 X판이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국회의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라며 이렇게 밝혔다.

박 의원은 "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민생 경제에 등한시한다고 공격하면 국민 지지를 받았지만 존경의 대상인 국회의장을 밀어붙이며 성추행했다고 공격하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이라며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그들이 증오하는 운동권식 과거 투쟁을 똑같이 답습하기 때문에 황대표에 대해 뭔가 새로운 기대를 했던 국민들도 저 사람도 똑같다면서 실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식의 투쟁은 진보가 훨씬 더 잘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바른미래당의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루비콘 강은 이미 건넜다"며 "유승민 대표가 27일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유 대표가 잘대로 탈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안철수 전 대표까지 돌아오면 유승민 대표와 함께 바른미래당에서 계속 동지를 틀 것"이라며 "그래서 저는 손학규 대표에게 안철수 전 대표가 오기 전에 속히 결단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안철수, 유승민 전 대표는 총선과 대선을 생각할 때 바른미래당에 계속 남아있다가 총선 막판 즈음해서 한국당과의 통합 또는 연합 · 연대를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sekim@news1.kr

성장률 쇼크 1분기 -0.3% 역성장... 금융위기후 10년만에 최저

5분기만에 마이너스 성장...수출·설비투자 동반 악화
한은 "올 성장률 2.5% 달성 예상" vs 전문가 "너무 낙관적"

(서울=뉴스1) 장도민, 민정혜 기자 = 올해 1분기(1~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수출 부진과 설비 투자 악화로 -0.3%(전 분기 대비) 뒷걸음질쳤다. 지난 2017년 4분기(-0.2%) 이후 5분기만에 마이너스 성장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였던 2008년 4분기(-3.3%) 이후 41분기만에 최저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성장률 쇼크'의 원인으로 반도체 수출 및 설비투자 부진과 민간 소비 증가세 악화를 꼽았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부진 여파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경제를 떠받쳐온 정부 부문의 기여도마저 크게 떨어져 역성장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크게 밑돈 수치이며 한은도 "쇼크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2.5% 달성이 가능하다고 낙관론을 폈다. 앞서 한은은 지난 18일 경제전망 발표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0.1%포인트 하향조정했다.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에 최저...반도체 착시 현실화

25일 한은이 발표한 '2019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34% 하락했다. 민간(0.1%) 및 정부 소비지출(0.3%)이 증가했지만 수출(-2.6%)이 감소했고 설비(-10.8%) 및 건

설 투자(-0.1%)가 감소세로 전환한 영향이다.

특히 의존도가 높았던 반도체 수출 및 설비투자가 부진해진 게 주된 요인이다. 반도체 착시현상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수출은 LCD반도체 등 전기 및 전자기기를 중심으로 2.6% 줄었다. 지난 2017년 4분기(-5.3%) 이후 최저치다. 설비투자는 전분기 대비 10.8% 급감하면서 성장률 쇼크를 이끌었다. 이는 IMF 외환위기 시절이었던 1998년 1분기(-24.8%) 이후 84분기만에 가장 많이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반도체와 관련 장비에 투자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며 "기계류 투자가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중 무역분쟁의 방향이 과거보다 더 명확해졌으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무역분쟁은 투자와 수출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간소비도 전 분기 대비 0.1%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2016년 4분기(1.4%) 이후 9분기 만에 최저치다. 서비스(의료 등)와 준내구재(의류 등) 소비가 줄어든 반면 내구재(가전제품 등) 소비는 늘었다.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0.3% 증가했다.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줄어 0.1% 감소했다.

반도체 업황이 악화되면서 경제활동

별 국내총생산도 제조업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농산물 생산이 늘어나면서 농림어업은 4.7% 증가했으나 제조업은 전기 및 전자기기, 화학제품 등이 줄어 2.4%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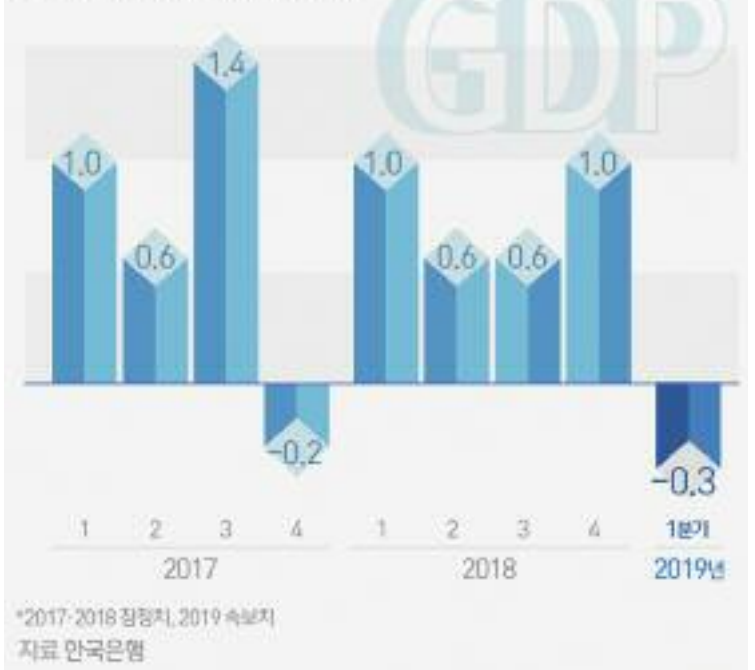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던 1분기 수입도 전 분기 대비 3.3%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환경 관련 규제 때문에 외제차(BMW) 등이 수입되지 못해서 운송장비 부분에서 수치가 꺾이기도 했고 운송장비에 포함되는 선박 등 군수장비의 경우도 지난해 4분기 수입 증가율이 높았다가 기저효과로 1분기에 줄었다"고 설명했다.

◇한은 "올해 2.5% 달성 가능"...전문가 "너무 낙관적"

전문가들은 한은이 내부적으로 1분기 성장률 쇼크를 예상했던 상황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밖에 낮추지 않은 것에 대해 너무 낙관적인 게 아니냐고 지적한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한은의 전망치인 2.5%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2.5% 달성 가능성에 대해 낙관했다. 1분기 성장률 -0.3%를 고려하고도 연 2.5%를 제시했다는 게 한은의 입장이다.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2분기에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1.2% 이상 성장한다고 보고 3분기나 4분기 0.8-0.9%를 유지할 경우 연간 성장률 2.5%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내 분기별 실질 GDP 증감률 추이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단위: %)



또 1분기 정부소비가 0.3%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2분기부터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고 하반기 글로벌 경기 회복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 예산은 연간 단위로 배정되고 연내 지출하는 구조인데, 1분기에 지출하지 않은 것은 2분기 이후 집행하게 된다"며 "추가경정예산 예상 효과 수준인 0.1%포인트까지 더해지면 정부 소비지출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데 2분기부터 성장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존 전망 경로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또 한은 관계자는 "정부가 여도가 이번에 플러스(+)로 나왔다면 성장률도 플러스였을 것"이라며 "신규 사회간접자본(SOC) 지출의 경우 사업 준비에 시일이 걸리다 보니 경제지표에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 2.5%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봤다. 안기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설비투자가 우리나라 성장률을 꺾어먹고 있다"며 "추경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정부 예산 증가율이 높아져도 GDP 계정에 반영되는 정부지출 증가율은 그만큼 못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조한 1분기 성과를 감안하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2.3%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jdm@news1.kr

고용쇼크에 지갑 닫았다...가구 월 소비지출 254만원 0.8% 감소

2018년 가계동향조사 지출부문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지난해 발생한 고용쇼크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지면서 가계의 씹씀이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18년 가계동향조사 지출부문 결과'에 따르면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253만8000원으로 전년 255만7000원보다 1만9000원(-0.8%) 감소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소비지출은 243만원으로 전년 대비 2.2%나 줄었다.

지난해 소비지출이 줄어든 것은 줄어든 소득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인 가구 이상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4%대 성장을 기록했으나 1인 가구를 포함하게 되면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0%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의 노인가구와 저소득 청년층이

1인 가구에 다수 포함되면서 소득이 감소하게 된 것이다.

특히 가구소득의 3분의 2 이상이 근로소득에서 비롯된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가구의 소득감소는 고용부진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취업자는 전년대비 9만7000명 증가에 그치며 2009년(-8만7000명 증가)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소비지출 항목별로 보면 식료품·비주류음료(14.4%), 음식·숙박(13.8%), 교통(13.7%), 주거·수도·광열(11.2%) 순으로 지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은 가격상승으로 곡물지출이 늘면서 전년대비 1.8% 증가한 월평균 36만7000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주류·담배 지출은 월평균 3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0.6% 증가했다. 주류 지출이 0.2% 감소한 반면, 담배 지출은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신발(-4.3%), 교통(-5.5%), 통신(-2.7%), 교육(-7.9%), 음식·숙박(-1.3%), 상품·서비스(-4.7%) 지출은 감소했다. boazhoon@news1.kr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OUR AGENTS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전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신보경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전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 유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크리스틴 손
773.968.2651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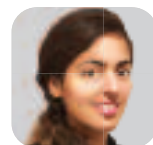
미니 유
617.803.1266
miniee@bostonpremierrealty.com



이준균
617.543.5728
jun@bostonpremierrealty.com



차민영
651.402.5194
minyoung@bostonpremierrealty.com



Ritika Chopra
617.697.1191
rchopra@bostonpremierrealty.com



이현주
401.935.3397
hyunju@bostonpremierrealty.com



최은경
781.690.4389
chrischoi@bostonpremierrealty.com

OUR LISTINGS



● 세탁소 매매

보스톤남쪽, 타운센터에 위치한 Full Plant. 안정된 고객과 매상. 소유주 은퇴. 하이드로카본.

Asking \$300,000



● Fish마켓 매매

성공한 한인들의 발판이 되었던 비즈니스 보스톤 남쪽 변화한 몰에 위치. 연매상 450K 이상. 넓은 주차장. To-go 메뉴로 Extra 수입.

Asking \$140,000



● 커머셜 빌딩

보스톤 북쪽 시티에 위치 메인 스트리트 선상, 주요 체인점들 주변 "매상높은" 세탁소 비즈니스 포함

Asking \$990,000



● 식당 매매

Hibachi 테이블 & 스시바 풀 리퀴 라이센스, 2500 스퀘어피트 보스톤 북쪽에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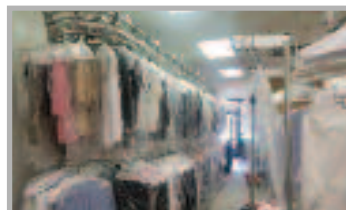
Asking \$70,000



● 드랍오프 세탁소

보스톤 북쪽 교통량 많은 메인 스트리트에 위치 안정된 고객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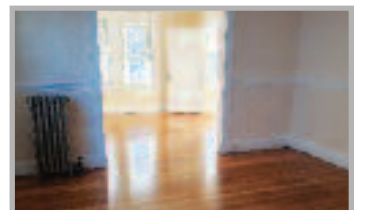
Asking \$40,000



● 드랍오프 세탁소

보스톤 남쪽, 좋은 위치, Tailoring 수요 높음 대형 미국 체인점 주변 안정된 인근 여러 타운의 고객 확보

Asking \$50,000



● 주거렌트

에버렛에 위치, 1125 Sq. Ft, 2 Beds & 1 Bath, 새로레노베이션된아파트 주차가능, 보스톤에인접, 단기렌트가능

Asking \$2000/월



● 리테일 가게 매매

대형 아시안 슈퍼마켓내에 입점 연중무휴로 바쁜 가게, 안정된 고정 매출 업종 변경 가능

Asking 가격 문의 바람



● 드랍오프 세탁소

보스톤 북쪽 좋은 위치와 저렴한 렌트비 안정된 고객과 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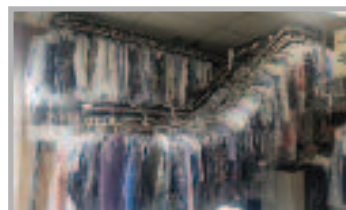
Asking \$50,000



● Take Out Seafood 튀김 가게

보스톤 환승 스테이션 위치, 특점 상권 종일 바쁜 가게, 매상 50% 순수익, 연매상 \$300,000이상

Asking \$150,000



● 세탁소매매

보스톤북쪽에 위치, Full plant 세탁소 안정된고객과매상

Asking \$165,000



● 세탁소 단독건물 매매

보스톤 인근에 위치, 안정된 매상, 좋은 위치 및 개발중인 Complex 인근에 위치

Asking \$1,095,000

국제선 모금 만찬

2019.4.27
5PM (SAT)

아름다운 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친애하는 보스톤 시민 여러분,
 애타게 기다던 봄이 갑자기 한꺼번에 뉴잉글랜드에 찾아 왔습니다.
 개나리와 이른 봄꽃들이 향연을 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 희노애락 가운데에서도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매년하는 국제결혼 가정선교회 모금만찬을 돌아오는 4월27일 토요일 6시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먼 이국땅에 오셔서 한국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네 이웃이 누구냐?” 라고 물어보시며, “네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동안 여러 모양으로 보스톤 국제선교 지부를 도우시고 23년동안 연중행사로 하는 모금만찬 (평화의땅, 평화의집 쉼터)를 위한 자리에 오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작은자들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섬기고 나누는 선한 일에 동역자들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 이웃들과 나누며 보람되고 알찬 날들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기도드리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보스톤 국제선 지부일동

장소: DiBurro's Function Facility
날자: 4월 27일 2019년 오후 6시, \$60.00/person
주소: 887 Boston Road Haverhill, MA 01835
연락처: 978-828-5818 채명희 지부장
WWW.NAICFM.ORG





가정의달 최고의 선물 정관장 특별 프로모션

“보스톤 매장에서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정관장

정관장



홍삼의 6대 효능

- 면역력 증진
- 피로개선
- 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순환
- 기억력개선
- 항산화에 도움
- 장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

Event 1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마일드 **100g** 증정



Event 2

화매락 분, 진 구입시
10포 추가증정

3+1



Event 3

홍삼톤 골드, 마일드, 홍천웅 구입시
홍삼톤 마일드 **10포** 증정



Event 4



홍삼추출액 구입시
5포 추가 증정

Event 5

3+1

홍이장군, 아이패스 구입시
10포 추가 증정



동인비 제품 **SALE**
15%~20%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MART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미소랑치과'

치아미백 궁금증 해소



TV나 영화를 보다 보면 연예인들의 하얀 치아가 부러울 때가 있었을 것이다.

과연 연예인들은 어떻게 저런 하얀 치아를 가지고 있을까?

이번 주 휴람에서는 휴람네트워크 미소랑치과의 도움을 받아 치아 미백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Q&A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Q : 치아미백은 어떤 사람들을 위한 치료이며,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A : 환자들의 심미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보다 하얀 치아를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외국에는 미백 중독 (bleachorexic)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철 치료 시 옆의 자연치아 색상에 맞추어 제작을 하였지만 요즘은 미백 치료를 선행하여 자연치아의 색상을 보다 하얗게 하고 그 색상에 맞추어 보철 치료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한번의 전문가 미백으로도 극적인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랑거나 갈색 (yellow blown) 계통의 치아 색상을 가진 사람에게 더욱 효과가 큼니다.

Q : 자가미백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전문가미백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며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 자가미백(home bleaching)과 전문가 미백(power bleaching, office bleaching)을 비교해보면

첫째, 약제의 농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가 미백의 경우 집에서 환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치과의사의 관리하에 하는 전문가 미백에 비해 약제의 농도가 낮습니다.

둘째, 미백이 되는 속도는 전문가 미백이 자가 미백보다는 빠릅니다. 그래서 전문가 미백을 power bleaching 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셋째, 치료 기간은 전문가 미백이 자가 미백에 비해 짧습니다. 전문가 미백은 3-4일 간격으로 3-4회 시행하게 되어 2주 정도가 소요 됩니다. 자가 미백의 경우는 4-5주가 소요 됩니다. 두 술식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약 6주 정도가 소요 됩니다.

넷째, 미백 약제가 잇몸에 손상을 주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는데 자가 미백은 환자가 직접하기 때문에 잇몸 손상의 가능성이 전문가 미백보다는 큰 편입니다. 하지만 주의 사항을 잘 숙지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미백의 결과는 두 술식 모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은 전문가 미백이 조금 더 비쌌습니다.

Q : 일반인들이 자가미백을 택할 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치아 미백제 선택 기준은 어떻게 해야 하며, 사용 시 주의사항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A :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미백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백 스트립, 미백 팬, 미백 면봉, 미

백 치약, 미백 치실 등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미백제의 농도가 낮기 때문에 미백 효과를 단기간에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전문가 미백과 자가 미백을 한 후 환자의 취향에 따라 보조적으로 사용한다면 어떤 것을 사용해도 무관합니다.

Q : 전문가미백 치료 시 시술 시간과 시술 후 얼마나 오래 동안 유지되나요?

A : 전문가 미백은 3-4일 간격으로 3-4회 시행하게 되고 한번 시술 시간은 40분 정도가 소요 됩니다. 환자분의 식생활에 따라 다르지만 미백 효과는 1-3년 정도 지속됩니다. 녹차나 홍차, 커피, 탄산음료 등 착색이 되기 쉬운 음식을 자주 먹는다면 지속기간은 더 짧아지게 됩니다. 보통은 6개월 간격으로 치과를 방문하여 체크를 받고 필요하면 전문가 미백(touch-up)을 한번 받게 됩니다.

Q : 치아가 누렇게 변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음식, 칫솔방법, 등〉

A : 앞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녹차나 홍차, 커피, 탄산음료와 착색이 되기 쉬운 음식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칫솔 방법은 일반적으로 하는 식으로 치아만을 닦는 것이 아니라 잇몸을 건드리면서 좌우 방향이 아닌 상하 (위,아래) 방향으로 잇솔질을 하면 치아가 누렇게 되는 것을 방지 할 뿐만 아니라 잇몸 건강에도 좋습니다. 미백 치약과 같은

보조제를 사용한다면 효과는 더 좋습니다.

Q : 치아미백에 대한 일반인들이 잘 못 이해하고 있는 치과 정보나 민간요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 환자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의 하나가 미백을 하면 치아가 약해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백제는 치아 내부에 있는 불순물에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백을 한다고 해서 치아가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백을 받게 되면 10명중 7명 정도는 시린 증상을 호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증상은 1-3일간 지속되고 그 이후가 되면 안정화 됩니다. 시린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치과 의사와 상의 후 약제를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미백 후 치아 수복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보통 2-4주 후에 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그때 색상도 안정화되고 접착력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미백 후 5-10년은 젊어 보인다고 합니다. 미백은 안전한 술식으로 하얀 치아로 자신있게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치아 미백"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보스톤코리아(617-949-1766)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진료예약-치료-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Susan Ahn 부동산

한인대표 에이전트 #1

고객들의 끊임없는 추천이 증명하는 실력, 신속 정확한 일처리

MULTI MILLION DOLLAR SALES. TOP PRODUCER #1 AGENT



보스톤 최고 명성의 부동산 회사 Centre Realty Group에 소속되어 있고, 20년 넘는 미국 생활과 부동산 노하우로 부동산 구매, 매매, 투자건물, 렌트를 찾아 드립니다. 한국에 계시는 고객은 계약을 하고 바로 입주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Cell: 339.224.1512

Kakao ID: susan1223
Email: susan.ahn@centrerealtygroup.com

1280 Centre St.
Newton, MA 02459



Jay Lee

Newstar JBL Realty in Boston



잘 하겠습니다!

-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뉴스타 JBL부동산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FEATURED LISTINGS (문의: 애나 정 617.780.1675)



East Cambridge New condominium에서 편리하고 멋진생활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55세대 Residential 7층 건물. 2bed만 Available. 입주와 투자용으로 최고의 위치 Lechmere 0.3miles MGH 1.5 miles Harvard University 2miles

ASKING \$899k - 1199k









Woburn's Newest Luxury farmhouse Condominium (Townhouse)에서 전원생활을 즐길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총112세대, 1층 9 foot ceiling과 open concept floor plan. 2bed, 2bath이상

ASKING \$600,000-\$800,000

주택매매 전문, 상용건물, 투자, 사업체 아파트렌트, 부동산개발 투자상담 환영

금주의 LISTINGS

 <p>보스턴 남쪽 성업중인 세탁소 매매 고정손님 확보</p> <p>ASKING \$99,000</p>	 <p>단독 건물 매매. 세탁소 포함 오너 파이낸싱 가능 보스턴 남쪽</p> <p>ASKING \$480,000</p>	 <p>보스턴 남쪽, 세탁소 매매 안정된 수입, 고정손님 확보</p> <p>ASKING \$160,000</p>
 <p>Belmont 성황중인 Nail salon 주인 리타이어, 6 manicure, 6 pedicure, unlimited potential</p> <p>ASKING \$150,000</p>	 <p>새로이 설립되어 성업중. 무한한 가능성. 알링턴 Nail Salon & Spa</p> <p>ASKING \$375,000</p>	 <p>NH 대형 물 안에 위치 8 Manicure, 9 pedicure 성업 중인 Nail salon</p> <p>ASKING \$150,000</p>



WE ARE RECRUITING NEW AGENT

NOW HIRING

뉴스타 JBL 부동산과 함께 하실 새로운 가족을 찾습니다.



애나 정
617.780.1675



오성빈
978.505.3736

SOLD

1. 퀴지 마리나 베이 고급 1 B/R 콘도 **SOLD**
2. Condominium in Billerica 3 B/R, 2 Bath, \$280,000 **SOLD**
3. Drop Shop in Somerville \$30,000 **SOLD**
4. Condominium in Andover, 3 B/R, 2 1/2 Bath **SOLD**
5. Nail salon in Dedham **SOLD**
6. Brighton 1 Bedroom condominium **SOLD**
7. Dedham Single Family House, 6 Bed/4 bath **SOLD**
8. Boston Fenway Condominium, \$668,000 **SOLD**
9. Arlington Single Family House, \$1,495,000 **SOLD**
10. Quincy Single Family House 4 Bedroom **SOLD**
11. Dedham Single Family House \$745,000 **SOLD**
12. Drop shop in Newton \$49,000 **SOLD**

LISTINGS

 <p>North Andover 성업중인 풀 플랜트 세탁소</p> <p>ASKING \$130,000</p>	 <p>보스턴 서쪽 네일샵 안정된 수입, 고정손님 확보</p> <p>ASKING \$170,000</p>	 <p>캠브리지 비어 와인 팩캐지 store</p> <p>ASKING \$200,000</p>
--	--	--

박유천, 국과수 마약 검사 '양성'...영장심사에 영향줄 듯

체모 대부분 깎아 다리털서 검출
황하나도 모발서 양성
경찰 "함께 필로폰 투약한 것으로 보여"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필로폰 투약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2)에 대한 마약 반응검사 결과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이같은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로부터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박씨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체모가 대부분 제모된 상태에서 다리털을 일부 채취, 국과수에 마약성분을 감정이되었다.

자신에게 마약을 권유하고 함께 투약한 장본인으로 박씨를 지목했던 옛 연인인 황하나씨(31) 역시 경찰이 황씨의 모발을 채취해 국과수에 마약성분을 의뢰했고 그 결과, 지난 15일 양성반

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박씨와 황씨가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면서 23일 박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청구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경기도 하남시 소재 박씨의 자택을 비롯해 신체,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때 경찰은 박씨의 소변으로 마약성분을 검출하기 위해 간이검사를 실시했지만 음성반응으로 나왔기 때문에 정밀감정을 위해 박씨의 신체의 극히 일부에 남아있는 다리털을 채취, 국과수에 마약성분을 의뢰했다.

이번 박씨의 마약성분에 대한 국과수의 양성 반응 결과와 함께 경찰이 '마약거래'로 의심되는 폐쇄회로(CC)TV 장면을 다수 확보하는 등 박씨가 그동안 무혐의를 주장했던 진술이 뒤집힐



마약 투약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2)가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추가 조사를 마치고 경찰청을 빠져나오고 있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앞서 경찰은 박씨가 보안성이 뛰어난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자로 의심되는 사람과 접촉한 후 서울 소재 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올 2~3월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수십만원을 입금하는 CCTV 장면을 확보했다.

또다른 CCTV는 박씨가 돈을 입금한 뒤 20~30분 지나 황씨와 어디론가 동행한 장면이 포착된 영상인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입한 뒤 황씨와 함께 마약을 나누기로 한 약속된 장소에 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그러나 '자신이 구입한 것이 아니라 황씨가 부탁해 대신 입금한 것이고 해당 SNS 계정도 본인의 것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황씨와 동행한 CCTV 장면엔

대해서도 '당시 마약을 찾으러 가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당초 이번주에 예정돼 있던 박씨와 황씨와의 대질신문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와 황씨가 그동안의 경찰 진술에서 서로 일관된 주장을 계속 펼쳐오는 등 사실상 대질신문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koo@news1.kr

만6세 미만 아동 230만명 오늘부터 월10만원 보편복지 혜택

소득과 재산 조사 없이 모두 지급

(서울=뉴스1) 박상희 기자 = 소득과 재산 조사 없이 만 6세 미만인 아동에게 25일부터 아동수당 10만원이 지급된다. 보편적 복지의 첫 사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으로 232만 7000여명(만 6세 미만 전체 아동 중 98.3%)이 아동수당을 신청했고, 이 중 신청서 기재 오류 등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1만8000여명을 제외한 230만 8000여명에게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1만8000여명은 신청한 계좌번호와 계좌주의 성명이 다른 경우와, 주민번호가 다른 경우,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 오류가 있는 경우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절차 진행 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보편지급으로 이달에 처음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은 경우에 따라 1~3월분도 소급해 함께 지급받게 된다.

이날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230만8000여명 중 이미 기존 소득조사 등을 거쳐 지급이 결정됐던 아동은 205만8000여명(전체 지급인원 중 89.2%)이며 보편지급 전환에 따라 소득과 재산 조사 없이 지

급이 결정된 아동은 25만명(전체 지급인원 중 10.8%)이다.

보편지급에 따라 새로 지급받는 25만 명 중 공무원이 직권신청한 아동은 11만 8000여명, 지난해 신청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처음 신청한 아동은 6만3000여명, 법 개정 공포일인 지난 1월 15일 이후 출생해 받게 된 아동은 6만9000여명이다.

한편,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에서 아동수당을 받는 부모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권 차관은 가족 여행, 장애 아동 선물, 대학등록금을 위한 저축 등 아동수당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부모들의 활용 소감과 아동정책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성장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만 6세 미만 아동은 신청한 달부터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로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sanghwi@news1.kr



서울 용산구 한강로동 주민센터 내 아동수당 신청 안내 포스터

김, 박근혜 형집행정지 신청 최종 불허 구속상태 유지

윤석열 중앙지검장, 檢심의위 '불허의결' 보고받고 결재
朴 "칼로 베는듯한 통증"...檢, 22일 서울구치소 찾아 임검

(서울=뉴스1) 구교운, 손인해 기자 =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25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위원장 박찬호 2차장검사)의 의결을 받아들여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구속기간이 지난 16일 만료됐으나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에서 확정된 징역 2년형이 집행돼야 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17일부터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됐다.

그는 기결수 전환 당일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겪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격주에 한번씩 구치소 안에서 한방정형외과 소속한의 사로부터 허리디스크 등에 대한 방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와 의료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임검(현장조사)을 약 1시간 진행했다. 의사 출신 검사 등 검사 2명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동석 하에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의무기록을 검토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박근혜 전 대통령

는 이날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했다. 위원회는 면담결과 및 진료기록을 검토한 뒤 박 전 대통령의 신청이 형집행정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사유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이다.

kukoo@news1.kr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건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제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건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배이역	617-345-7958
보스톤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톤수도	617-989-7000
보스톤시청	617-635-4500
보스톤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익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코올/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웹페이지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공정고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어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한국학연구소(한학)	978-407-7554
국제한국학연구소(한학)네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안전회	978-902-8305
NE교역자협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산악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민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주체사대권대협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스톤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781-854-8880
세력인협회	508-826-5270
이북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단체협의회	781-424-5269
대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양자대화(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 향우 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80-2999
뉴잉글랜드산악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랑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대학교동창회(한미)	617-780-7205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성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548-9052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617-792-8780
그리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낮아짐교회	781-832-2014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론교회	617-792-8780
그리랜드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랜드연합감리교회	203-861-1134
그리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내수아한마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어일랜드성동교회	401-353-0983
로어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대생명의길장로교회	617-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말할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동성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톤 새날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한울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781-275-1763
보스톤안식일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리안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예루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781-642-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선한목자교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62
에이더 벨렘교회	978-274-2359
엘리스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 시온교회	413-549-9200
우솔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우스터장로교회	781-354-1843
위스프린터 교회	97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켄싱턴장로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선교회	617-441-5211

불교

민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보스톤 정토 법회	617-977-4227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	--------------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어일랜드한인천주교	401-499-8258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톤정판브랜드스투어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퍼사이드 청문	617-999-9616
아놀드 건축	617-833-1360
파인원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 개인

골프 개인 PGA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Hana Rehab Clinic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티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 / 모기지

인디펜던트(투영)국	617-777-2929
에이저 리	781-591-2722
이중수파이낸스	617-799-6158

냉동 / 에어컨 / 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진 노래방	617-782-9282
-------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울스탕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649-6513
윤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킴 동물병원	978-658-5282

떡 / 잔치 / 반찬(주문)

형제떡집	978-343-6080
장흥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키파티클럽	617-331-1011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안구정통얼굴방	617-437-0378
웨스트메인 헤어	508-734-0446
티케이헤어디자인	508-786-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지혜 헤어(Bloss Image)	617-818-5596
헤어앤드그레이스살롱	508-879-7177
MIN-AH MAKEUP	508-617-7122
Scotty's of Lexington	718-861-1277

돌상 대어/폐백

해피돌상	617-249-3131
폐백	978-688-0929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영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종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서 변호사(이민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드병원(이재원)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한성식내과	978-854-6376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스킨&바디 클리닉	
메드스파라멜니스	617-2026261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89-8670 x6080

양미아헤일리카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클리닉로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추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빙 D.C.	617-230-4250
Hana Rehab Clinic	617-455-8073
보스톤건스태드카이로	617-277-0648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규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환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비즈	617-871-1482
퀸지소아치과	617-47

성양두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t. Anne of Douay Parish of Boston, MA

판공성사
주일과 평일미사 전후 30분
3/27(수), 4/3(수) 7pm-9pm

성목요일 (4/18)
8pm- 주의 만찬미사

성금요일 (4/19)
3pm- 십자가의 길
8pm- 수난예절

성토요일 (4/20)
9pm- 부활 성야미사

부활절 (4/21)
3pm- 부활대축일 낮미사 및 세례성사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45
office.kcct@gmail.com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 경 열

HANN 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685.7688**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 목사: 권종삼
Faith Theological Seminary, M 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인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동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9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학교: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4989 부동산 매개는

BH HS 버크셔 헤서웨이
BERKSHIRE HATHAWAY

617-969-사구팔구

www.bhh-sneprime.com

보스턴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끄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 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15년동안 한인 비즈니스의
크레딧 카드 솔루션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MS**

flex Gift **UP SOLUTION**

UMS는 뉴저지에 본사를 둔 카드결제 전문회사로서 미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Gift 기프트카드 프로그램, 자회사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들을 제공, 최적의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UMS 보스턴지사 공식딜러 **이선호**
781.266.7245
617.820.4833



5월 1일부터 Tbo 상품의 가격이 인상됩니다.
 가입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은 **4월 30일까지** 서둘러 가입하세요!

상품 가격이 아래와 같이 조정됩니다. (무료영화는 4월 및 5월까지 무료. 6월부터 편당 1볼로 변경)

Plus 상품

KBS, MBC, SBS,
EBS, YOUTUBE

\$24.99

Premium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종편,
YOUTUBE

\$34.99

VIP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종편,
영화/성인, YOUTUBE

\$39.99

*전상품 무약정



총 13개
Live방송중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NOW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마동석 '악인전' 조직 보스役

지금까지 맡은 역 중 가장 세다

(서울=뉴스1스타) 정유진 기자 = 대체 불가능한 카리스마와 강력한 액션으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자랑하는 배우 마동석이 '악인전'에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조직 보스 캐릭터를 선보인다.



마동석은 제72회 칸 국제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리닝에 초청받으며 화제 물이 중인 영화 '악인전'에서 색다른 조직 보스 캐릭터 탄생에 예고한다.

'악인전'은 우연히 연쇄살인마의 표적이 됐다 살아남 조직폭력배 보스와 범인 잡기에 혈안이 된 강력반 미친개, 타협할 수 없는 두 사람이 함께 연쇄살인마 K를 쫓으며 벌어지는 범죄 액션 영화다.

중부권 최대 조직의 보스 장동수(마동석 분)는 강력한 주먹과 냉철한 이성을 지닌 인물로 상황에 따라 주먹과 협상을 동시에 사용해 최고의 자리를 지켜왔다. 우연히 정체불명의 남자에게 공격받아 보스의 위신과 체면에 심각한 손상을 입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놈을 추적하기 시작한다.

"자신을 건드린 자는 누구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복수를 다짐한 장동수는 경찰의 수사력을 역이용하는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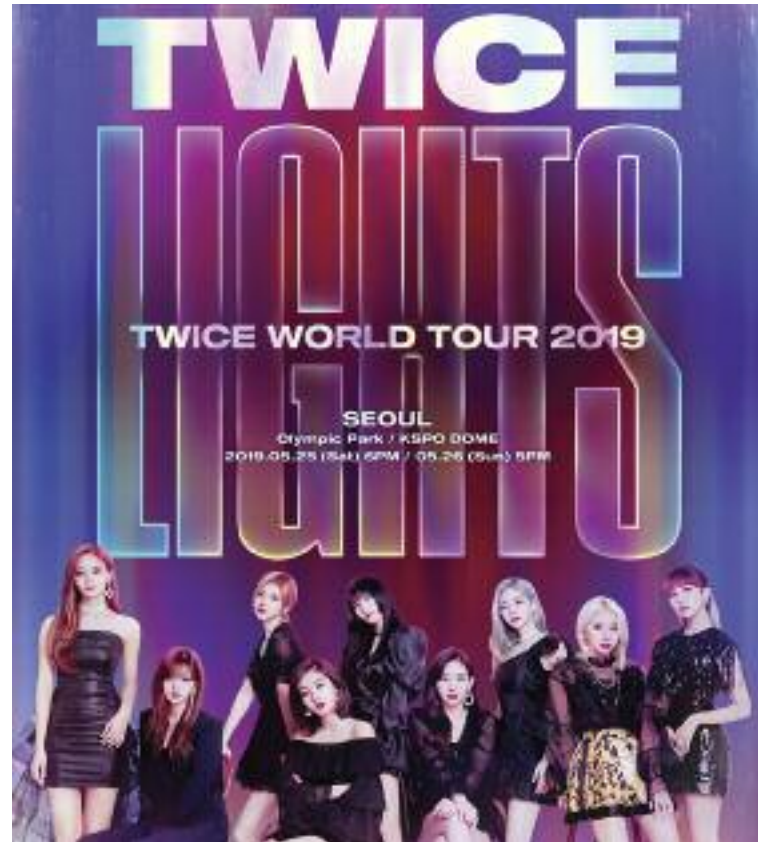
지를 발휘, 형사 정태석(김무열 분)과 손을 잡는다. 경찰의 정보력을 바탕으로 조직의 인력과 재력을 이용해 전략을 세우고, 결정적 순간에는 거침없이 주먹을 날리는 장동수에 대해 마동석은 "살인마를 쫓으며 추리하고, 형사처럼 자료를 수집하는 등 조직 보스의 또 다른 일면을 보여준다. 내가 맡은 역할들 중 가장 세다"고 말해 역대급 캐릭터의 탄생을 예고한다.

한국영화 속에서 꾸준히 관객들의 사랑을 받아온 조직 보스 캐릭터들은 해를 거듭하며 업그레이드됐다.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2012) 속 부산 최대 조직의 젊은 보스 최형배(하정우)는 카리스마와 능글맞은 매력을 동시에 갖춘 보스로 큰 사랑을 받았다. '신세계'(2013)의 이중

구(박성웅)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위축되지 않는 카리스마로 조연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뇌리에 강하게 각인됐다.

이어 '범죄도시'(2017)의 무자비한 신흥범죄조직 보스 장첸(윤계상)은 독특한 억양의 대사와 악랄하고 잔혹한 모습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68만 관객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악인전'의 마동석이 이들의 뒤를 이어 역대급 보스 캐릭터로 극장가에 신드롬을 가져올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강력한 주먹과 경찰까지 이용하는 냉철한 이성을 겸비한 '마보스' 장동석이 한국에 이어 칸까지 사로잡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악인전'은 오는 5월 15일 개봉. eujenej@news1.kr



트와이스 '팬시', 차트 정상, 월드투어 시작

(서울=뉴스1스타) 황미현 기자 = 트와이스가 미니 7집 'FANCY YOU(팬시유)'의 타이틀곡 'FANCY(팬시)'로 음원 차트 정상을 차지했다. 또 올해 월드컵투어의 포문을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KSPO DOME)에서 열리며 겹경사를 맞이했다.

22일 오후 6시 각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신곡 'FANCY'는 당일 오후 8시 기준 최대 음원 사이트 멜론을 비롯해 실시간 음원 차트 1위를 기록했다. 이어 23일 오전 8시 기준 애플, 네이버, 지

니, 올레, 소리바다, 벅스 등 6개 실시간 차트 1위에 오르며 인기몰이 중이다.

또 새 앨범 'FANCY YOU'는 23일 오전 기준 싱가포르, 태국, 그리스, 독일, 브라질, 멕시코 등 해외 25개 지역 아이튠즈 앨범 차트 정상을 차지했고, 타이틀곡 'FANCY'는 홍콩, 베트남 등 해외 8개 지역 아이튠즈 송 차트에서도 1위를 기록하며 전 세계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hnh1@news1.kr

4월 28일 - 5월 4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마음이 통하니</p> <p>●운수:혹시라도 놓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차근차근 잘 살펴보세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만한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금전: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기 늘 요즘만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큰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정: 마음을 활짝 열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봐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통하니 편해집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29, 4일 길일, 28, 30일 주의.</p>	<p>소띠 에너지를 재충전해야</p> <p>●운수:틈틈이 쉬면서 에너지를 재충전해야 합니다. 더 이상 무리하면 결국은 체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금전:촉만 믿고 거래하다가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리스크를 고려해서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애정:다시 생각해보도록 하세요. 지금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한 일이라도 금방 후회하게 될 수 있습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30, 3일 길일, 28, 1일 주의.</p>	<p>범띠 새로운 변화를</p> <p>●운수: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운 변화를 주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사를 하거나 이전을 하기에 적합한 때입니다. ●금전:장바구니 부담을 크게 줄여줄만한 일이 있겠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들어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애정:멋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상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할만한 사람을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1, 4일 길일, 29, 2일 주의.</p>
<p>토끼띠 멀리서 찾지 말고</p> <p>●운수:현 상태에서 탈피할 길을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내면 좋은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금전: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얻는 것이 있습니다. 매매하기에 적절한 타이밍이 왔으니 잘 활용하면 이득으로 연결됩니다. ●애정:두 사람의 사이가 많이 진전됩니다. 싱글은 가까이엔 연인이 있으니 멀리서 찾지 말고 주위를 둘러보세요. 87, 75, 63, 51, 39, 27년생은 28, 2일 길일, 30, 3일 주의.</p>	<p>용띠 사실 여부를 떠나서</p> <p>●운수:앞날에 대한 고민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아서 갈등하게 됩니다. ●금전:원가를 시려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시세에 비해 턱없이 싼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애정:사실 여부를 떠나서 한 번 의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의심스럽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29, 3일 길일, 1, 4일 주의.</p>	<p>뱀띠 뜻밖의 행운이 오니</p> <p>●운수:남의 말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소신대로 일처리를 하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입니다. ●금전:투자나 매매에 있어서 큰 기쁨이 따릅니다. 매사를 순리대로 처리하면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애정:메이크업이나 헤어스타일의 변화 등 외모에 변화를 주어야 할 때입니다. 뜻밖의 행운이 오니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세요. 89, 77, 65, 53, 41, 29년생은 30, 4일 길일, 1, 2일 주의.</p>
<p>말띠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p> <p>●운수:칭찬을 해줄만한 일이 있으면 제대로 해주세요. 칭찬의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묶어두기보다는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상태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은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애정:상대가 병 주고 약 주는 행동을 합니다. 마음이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8, 1일 길일, 30, 3일 주의.</p>	<p>양띠 순서를 정해서 처리해나가야</p> <p>●운수: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씩 순서를 정해서 처리해나가야 합니다. ●금전:나 살자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자신에게도 큰 득이 되지 않습니다. ●애정: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한 행동이 상처를 주거나 불만을 끼치는 일이 될 수 있으니 잘 살펴주세요. 91, 79, 67, 55, 43, 31년생은 29, 2일 길일, 1, 4일 주의.</p>	<p>원숭이띠 우연한 만남이 예상되는</p> <p>●운수:생활에서 오는 만족도가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말 안 해도 척척 알아서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편안하겠습니다. ●금전:좋은 물건을 싸게 구입하게 되니 크게 절약이 됩니다. 돈을 쓰면서도 이익을 본 것 같은 기분이 들겠습니다. ●애정:우연한 만남이 예상되는 시기입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용기내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세요. 92, 80, 68, 56, 44, 32년생은 29, 3일 길일, 30, 2일 주의.</p>
<p>닭띠 첫걸음을 시작해야</p> <p>●운수: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첫걸음을 시작해야 합니다. ●금전:들어올 돈이 자꾸 미루어지니 마음이 답답하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이득이 따라올 것입니다. ●애정:흘러간 사람이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지난간 추억에 젖어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9, 4일 길일, 1, 3일 주의.</p>	<p>개띠 벌집을 건드린 격이</p> <p>●운수:가만히 내버려두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을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괜히 벌집을 건드린 격이 될 수 있습니다. ●금전:금전문제로 서로 불편해질 수 있는 때입니다. 지금은 길게 대화를 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애정:상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9, 1일 길일, 28, 4일 주의.</p>	<p>돼지띠 흔들리지 말아야</p> <p>●운수: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스스로 초라해지고 불행해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됩니다. ●금전: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태산이 아니라 돌부리입니다. 사소한 것이라고 너무 가볍게 여기다가는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애정:이미 연인이 있거나 짝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금방 들릴 수 있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8, 3일 길일, 29, 2일 주의.</p>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5/3
벨몬트지역 세탁소에서 카운터 보실 분 구합니다.
파트타임 1명, 풀타임 1명
T. 617-309-6140

5/3
렉싱턴센터에 위치한 한,일식당 다빈에서
함께 일하실 분 구합니다.
T. 781-860-0171

생활서비스

광고 문의 617-254-4654

5/3
자동차 출장 수리 해드립니다.
모든 브랜드 차종, 모든 파트 수리 가능합니다.
T. 646-510-6022

블랙핑크, 빌보드 메인차트 2주 연속 차트인 '글로벌 인기'

(서울=뉴스1스타) 황미현 기자 = 블랙핑크가 빌보드 메인 차트에 2주 연속 이름을 올리며 글로벌 인기를 입증했다.

23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 빌보드에 따르면 블랙핑크 새 EP 앨범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 타이틀곡 '킬 디스 러브'는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에 73위, 동명의 EP 앨범은 '빌보드 200'에서 93위를 기록했다.

'킬 디스 러브'는 지난 주 빌보드 '핫 100'과 '빌보드 200'에서 각각 41위와 24위를 기록하며 K팝 걸그룹 최고 성적을 거둔 바 있다.

블랙핑크는 신곡 컴백 이후 2주 연속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에 이름을 올리며 세계 최대 음악 시장 미국에서 뜨거운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 걸그룹 최초로 2주 연속 '핫 100'과 '빌보드 200'에 동시 차트인은 K팝이 미국 메인 팝시장에서 지속적인 성공 가능성을 보

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빌보드와 함께 양대 팝 차트로 불리는 UK 오피셜 차트 '싱글 차트 톱100'에서도 지난 주 33위로 첫 진입한데 이어 이번 주에는 48위에 랭크돼 2주 연속 차트인을 지켰다.

2주 연속 빌보드 메인 차트에 진입한 '킬 디스 러브'는 강렬한 브라스의 리드로 웅장한 드럼 사운드가 주된 테마를 이루는 곡으로, 블랙핑크의 카리스마 넘치는 랩과 보컬이 인상적이다.

블랙핑크는 '킬 디스 러브' 음원 공개 이후 미국 최대 음악 축제인 '코첼라 페스티벌' 무대에 올라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또, CBS 유명 심야 토크쇼 '더 레이트 레이트 쇼 위드 제임스 코든', 유명 라디오인 102.7 KIIS FM '조조 온 더 라디오(JoJo On The Radio)' 등에 출연해 미국 시청자들과 만나며 이름을



알리고 있다.

최근 로스앤젤레스에서 북미 투어 첫 공연을 마친 블랙핑크는 오는 24일 시카고로 향한다. 이어 27일 해밀턴, 5월 1일

~2일 뉴욕, 5월 5일 애틀랜타, 5월 8일~9일 포트워스로 이어지는 총 6개 도시 8회 규모의 북미 투어를 개최한다.

hmh1@news1.kr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어벤져스: 엔드게임', 개봉 4시간만에 100만 돌파 韓 역대 최단'

(서울=뉴스1스타) 정유진 기자 =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안소니 루소, 조 루소 감독)이 개봉 첫날 100만 관객을 일찌감치 돌파했다.

24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 전산망 배급사 기준에 따르면 이날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오전 11시 개봉 4시간 30분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영화 사상 최단기간 100만 돌파

파신 기록이다.

더불어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종전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신과함께-인고연'이 2018년 8월 1일에 세운 124만 6603명 기록을 뛰어넘는 기록이자 역대 외화 최고 오프닝 기록인 '쥬라기월드: 폴른 킹덤'이 작년 현충일에 세운 118만 3496명 오프닝 기록을 모두 금일 오후 중에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eujenej@news1.kr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 NCARB • CDT • LEED AP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20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your home!
Please call us for your major and mid-size renovation and new build projects.

otk212@gmail.com 617.620.8242

No handyman jobs, please.

© 2019 OTK DeCon Group

자동차와 카드 사이

“이번 발렌타인데이에 아내에게 뭘 해줄 거니?” “흠, 차를 사 줄 예정이야.” 오바마처럼 환칠한 키에 미남인 에두아드는 정말 돈 많은 자상한 남편인가보군, 부럽기도 하지,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나는 근처의 에티오피아 식당에 가서 아내와 함께 호젓하게 외식을 할 거라고 말해주었다. “그런데 차에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어.” 에두아드가 덧붙였다. 아니, 차에 뭐라고 쓰다니?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내가 뭘 잘못 알아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 떠올랐다. 에두아드도 소통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아챈 눈치였다. “Oh, no. I mean, I’m gonna buy her a card, not a car.” 차라 아니라 카드를 사준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왜 card를 car로 잘못 알아들었을까? 언어학적으로 말하자면 마지막 자음은 목으로 삼키기 때문에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다. 예를 들면 card와 cart는 글씨를 보면 확연하게 다르지만 소리로 들을 때는 딱 부러지게 구분되지 않는다. 두 단어가 구분되는 것은 마지막 /d/와 /t/의 차이가 아니라 모음의 길이 때문이다. 역시 전문용어를 빌리자면, /d/와 같은 유성자음이 오면 선행하는 모음이 길게 발음되고, /t/와 같은 무성자음이 오면 선행하는 모음이 짧게 발음된다. 거듭 말하지만 card와 cart는 끝의 자음이 거의 들리지도 않고 구분되지도 않는다. 좀 길다 싶으면 card이고, 짧다 싶으면 cart인 것이다.

이렇게 배워놓고 현장에서는 card를 car로 듣다니! 역시

대화는 맥락을 파악해야지 단어 하나하나를 알아들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교훈. 맞아 아무리 돈 많은 변호사라도 발렌타인데이에 아내에게 자동차를 사준다는 것은 좀 유별난 일이야. 미국사람들은 카드 쓰는 것을 좋아하니까 소박하게 카드를 쓰리라는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아무튼 그건 그렇고, 유성음과 무성음 이야기를 더 해보자. 이들은 단어 끝에서는 서로 구별이 되지 않고 앞에 오는 모음의 길이에 영향을 줄 뿐이다. 물론 사전에는 발음기호를 다르게 하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실제 발음이 아니라 마음속의 발음을 표기한 것에 불과하다. 전형적인 예가 bad와 bat이다. 사전에는 각각 /bæd/와 /bæt/로 구분되어 있지만, 실제 소리를 들어보면 전자가 후자보다 좀 길다는 점 외에는 전혀 다른 차이가 없다. 컴퓨터 음성분석을 보면 모든 유성음은 유성음으로 시작해서 무성음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에서 bad와 bat를 길이에 의해 구분하게 될 상황이 있을까? 그런 상황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bad는 형용사이고, bat는 명사니까 서로 쓰이는 맥락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필자처럼 card와 car를 헷갈리는 것도 흔한 경우는 아니다. 둘이 다 명사이긴 하지만, 워낙 두 단어의 차이가 크니까.

전에 애리조나에 살 때의 일이다. 쌀쌀한 어느 가을날 저녁에 아이와 함께 쓰시 레스토랑에 갔다. 여종업원이 뭐라고 하는데 필자의 귀에는 “같이 드시겠어요?” 하는 것 같았다

. 짧은 순간이었지만 눈치는 느끼고 상상력은 풍부한 필자는 또 속으로 생각했다. 아, 인심 한번 박하네, 아이랑 함께 왔고 같이 드시라니? 여종업원은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펴고 있는 필자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묵묵히 차를 따르고 있었다. 내 앞에 한 잔, 그리고 아이 앞에 한 잔. 따끈한 홍차였다. 같이 드시라는 말이 아니라 hot tea 드시라는 말이었다. 필자는 왜 hot tea를 ‘같이’ 로 알아들었을까?

언어학적 변명을 하자면 이렇다. /h/와 /k/는 둘 다 목젖부분에서 발음되는 소위 구개음이다. 연구개를 완전히 폐쇄했다가 열면서 발음하면 /k/가 되고, 반대로 그걸 완전히 개방하여 발음하면 /h/가 된다. 소주를 한 잔 들이켜고 [카~] 하는 사람이 있고 [하~] 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 언어에서 /k/와 /h/는 자주 교체된다. 미국사람들은 테무친을 [징기스칸]이라 부르지만 몽골인들은 그를 [징기스한]이라 부르고, 중국인들은 [청지쓰한(成吉思汗)]이라 부른다. 우즈베키스탄의 도시 부하라를 미국인들은 Bukhara라 쓰고 [부카라]라 발음하지만 현지인들은 [부하러]라 부른다. 뿐만이 아니다. ‘학생(學生)’을 일본식 한자음으로는 [각세]라 하고 ‘한국(韓國)’을 일본식 한자음으로는 [강고쿠]라 한다. ‘중국음’이란 뜻의 ‘한음(漢音)’을 일본식 한자음으로는 [칸온]이라 발음한다. 이 정도면 필자가 hot tea를 [같이]로 알아들은 것이 오로지 필자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변명이 되지 않았을까.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524)

은퇴플랜 롤오버(Rollover)의 중요성

오랫동안 일했던 직장에서 은퇴한다. 직장에 있던 은퇴플랜(401(k), 403(b), 457, TSP) 등을 그대로 남겨놓는다. 요즘에는 평생직장이란 개념도 없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직장을 서너 번씩 옮긴다. 직장을 옮기며 전에 다니던 은퇴플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기에 그대로 남겨둔다. 은퇴플랜을 금융회사로 롤오버하는 것이 왜 유리한지 순서 없이 함께 나누어 본다.

*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다양하다.

직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투자종목 대부분은 뮤추얼 펀드이며 종류도 제한되어 있다. 은퇴플랜을 금융회사로 롤오버하면 선택할 수 투자 종목이 수없이 많다. 뮤추얼 펀드뿐만 아니라 ETF를 비롯한 선택할 수 있는 종목이 많으므로 원하는 포트폴리오를 손쉽게 형성할 수 있다.

* 직장 은퇴플랜의 여러 가지 제약에서 벗어

날 수 있다.

직장 은퇴플랜은 사고팔 수 있는 횟수 등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금융회사로 롤오버한 계좌는 이러한 제약이 전혀 없다. 투자자가 원하는 대로 계좌를 운영할 수 있기에 포트폴리오 재조정(Rebalance) 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 직장 은퇴플랜이 있는 회사가 파산하면 은퇴플랜이 장기간 동결될 수 있다.

* 투자 비용이 저렴하다.

은퇴플랜을 운용하는 회사는 당연히 본인 회사에 수익이 많이 돌아오는 방법으로 은퇴플랜을 형성할 수 있다. 은퇴플랜에 선정된 종목과 금융회사의 비슷한 투자종목을 비교해서 비용이 저렴한 종목에 투자할 수 있다.

*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금융회사의 각 투자종목의 수익률을 정확히 알 수 있기에 직장인에게 유리한 종목에 투자할 수 있다.

* 최소금액인출(RMD)이 용이하다.

나이가 70.5가 되면 은퇴자금에서 정부가 정한 최소금액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직장에 있는 은퇴플랜보다 롤오버한 계좌에서 최소금액을 인출하는 것이 간편하고 계획해서 찾을 수 있다. 최소금액을 찾지 않으면 벌금이 50% 부과된다.

* 은퇴플랜 상속이 재정적으로 유리하다.

직장 은퇴플랜의 투자자가 사망하면 직장에서 정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 투자자가 사망시 어떤 은퇴플랜은 전부 찾아야(Lump Sum)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세금 부담이 당연히 크다. 금융회사로 롤오버한 계좌는 세금을 최소한 할 수 있으며 상속하는 데도 과정이 매우 간단하다.

직장인은 직장 은퇴플랜이 직원의 이익을 위해서 형성되었고 운영되리라 당연히 생각한다. 그러나 많은 회사들이 회사의 이익을 먼저 고려해서 은퇴플랜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직장인이 본인의 회사를 고소한다. 최근에 나온 월스트리트지에 의하면 직장인을 변호하는 법률회사가 은퇴플랜을 제공한 회사를 소송(잘못된 은퇴플랜)해서 회사로부터 받아낸 액수가 2010년 이후 무려 \$446 million (Law Firm wins \$55 million settlement in 401(k) fee suit, Anne Tergesen, WSJ, March 28, 2019) 이나 된다고 발표했다.

직장 은퇴플랜은 은퇴 후 생활해야 하는 소중한 돈이다. 본인은 물론 배우자에게도 필요한 돈이다. 은퇴하면서 혹은 직장을 옮기면서 직장 은퇴플랜을 금융회사로 롤오버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대로 하는 투자로 걱정근심 없는 은퇴 생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안마의자는 체형에 알맞는 제품인지, 생산회사가 어디고, 몇년된 회사 제품인지, WARRANTY 내용 및 기간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구입하세요!

• 무료 딜리버리 + 완벽한 설치 + 최고의 서비스 • 전문 기술자 상주 최대 5년 워런티 실시

미 최대 안마의자 전시장 HiTRONS MOTHER'S DAY SPECIAL SALE

★ 선착순 20명 ★ 세일기간 5/30/2019

 <p>INADA SOGNO</p> <p>Free Gift 일시불 구입시 SOL 안마의자 무료증정 (\$2000 상당)</p> <p>\$5,200</p>	 <p>POSITIVE POSTURE BRIO</p> <p>Free Gift 일시불 구입시 SOL 안마의자 무료증정 (\$2000 상당)</p> <p>\$104 /M 48m + Tax</p>
 <p>Panasonic MAJ7</p> <p>Free Gift 일시불 구입시 셀리턴 LED Mask 무료증정</p> <p>\$166.75 /M 60m + Tax</p>	 <p>Panasonic MA73</p> <p>Free Gift 일시불 구입시 셀리턴 LED Mask 무료증정</p> <p>\$142 /M 48m + Tax</p>
 <p>Orest OS5000</p> <p>Free Gift 일시불 구입시 셀리턴 LED Mask 무료증정</p> <p>\$114 /M 48m + Tax</p>	 <p>FUJIIRYOKI FJ7900</p> <p>Free Gift 일시불 구입시 담채 김치냉장고 120L 무료증정</p> <p>\$148 /M 36m + Tax</p>
 <p>BODYFRIEND REX L+</p> <p>Free Gift 일시불 구입시 LG 스타일러 무료증정</p> <p>\$155 /M 48m + Tax</p>	 <p>BODYFRIEND PHARAOH</p> <p>Free Gift 일시불 구입시 LG 스타일러 무료증정</p> <p>\$155 /M 48m + Tax</p>

<p>INADA NEST</p> <p>\$125 /month 48m + Tax</p>	<p>INADA FLEX 3S</p> <p>\$125 /month 36m + Tax</p>	<p>PANASONIC MA7D</p> <p>\$81 /month 60m + Tax</p>	<p>PANASONIC 30007</p> <p>\$100 /month 36m + Tax</p>	<p>PANASONIC MA10</p> <p>\$83 /month 24m + Tax</p>	<p>COZZIA CZ 710 Qi SE</p> <p>\$166 /month 36m + Tax</p>
---	--	--	--	--	--

HiTRONS™ 보스톤 1666 Massachusetts Ave. Lexington, MA 02420 **781-862-6867** www.hitrons.com

<p>NJ Main Branch</p> <p>1 Remsen Pl. Ridgefield NJ 07657 201-941-0024 (Ridgefield Hanyang Mall)</p>	<p>Bethel Health - NY</p> <p>150-2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718-445-2005 (Korea Village 1st fl.)</p>	<p>Bethel Health - NJ</p> <p>1475 Bergen Blvd. Fort Lee NJ 07024 1-888-809-1167 (Inside HanNam Mart)</p>	<p>PA Branch</p> <p>1222 Welsh Rd, Unit B5. North Wales PA 19454 215-368-1070 (Assi Plaza PA)</p>	<p>MD Branch</p> <p>8801 Baltimore National Pk. Ellicott City MD 21043 410-465-7125 (Lotte Plaza Market)</p>	<p>Mattress- NJ</p> <p>470 Broad Ave. Ridgefield NJ 07657 201-941-0010 (Next to the Dunkin' Donuts)</p>
--	---	--	---	--	---

신영의 세상 스케치

692회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국제선 모금 만찬'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국제선 임원들을 보면서...

4월 27일 (토) 6시에 Haverhill 소재 DiBurro's Function Facility에서 국제선(회장:채명희) 모금 만찬 행사가 있다. 국제결혼 가정선교회(National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Family Mission) :국제선은 국제결혼으로 인한 문화 충격과 언어 차이로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 여성들은 물론 노인, 청소년 등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봉사하는 봉사단체이다. 세인트 루이스에서 '평화의 땅, 평화의 집 셀터(김민지 목사)'를 돕는 모금 만찬이다. 처음에는 국제결혼 가정의 여성들이 찾았지만, 이제는 일반 가정의 한국 여성들도 많이 찾는다는 것이다.

한 2년 전에 '평화의 땅'을 위해 기도하며 이끌어가는 김민지 목사님을 보스턴에서 뵈게 되었다. '평화의 땅'의 기원을 따라 올라가며 이야기를 해주시는 가운데 가슴이 아리고 저러온다. 곁에 둘러앉아 얘기를 나누는 이들이 모두 국제결혼을 한 분들이었다. 지금에야 이렇듯 당당하게 살고 있지만, 40, 50여 년 전 처음 미국에 왔을 때를 기억하며 미국 남편과 미국 가족들에 대한 소외보다도 지나가는 길에 만나는 한국인이 더 힘들고 버거웠다

고 말씀하신다. 국제결혼가정이라는 말보다도 '국제결혼 한 여자' 정도로 치부해버리는 아픔이 많았었다고 말이다.

처음 '평화의 땅'을 사게 되고 사역하게 된 동기는 1991년도 시카고에서 소금 차에 치어 죽은 국제결혼 한인 여성(박용섭)에 대한 억울함 때문이었다고 한다. 이런 억울함은 여기서 끝이어야 한다고 그렇게들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한 것이다. 29년 전 미국 각처에 있는 지부들과 함께 한국의 지부들이 모여 처음에는 한 달에 \$5.00씩 모으기 시작했었다. 그렇게 모인 작은 씨앗이 큰 열매가 된 것이다. 남편과 자식과 가족에게 버림받고 마음의 상처로 마음 돌 곳 없고 갈 곳 없는 이들이 의지할 수 있고 새로운 새 삶으로 갈 수 있도록 꿈과 용기와 희망을 주는 곳이 되었다

그렇게 29년 전 1999년에 세인트 루이스에 땅 (105 Acres)을 사게 되었는데 그것은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라고 모두 고백을 하신다. 각 지회의 회비가 개인당 \$5.00인데 이것이 모여 3만 불이 되었지만, 모자라 한국 지회까지 모두 합해 한

달 만에 7만 불이 되어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화의 땅'을 사게 되었다는 것이다. 겨 자씨의 기적이 세인트 루이스(St. Louis)의 '평화의 땅'에서 일어난 것이다. 하지만 오늘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으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을까. 이 '평화의 땅'의 기적에는!!

지난해 11월에 플로리다로 이사를 하신 '보스턴한미노인회' 전 회장 유영심 님이 이번 '국제선 모금 만찬' 행사를 위해 며칠 전 보스턴에 오셨다. 48년이란 긴 세월 동안 이곳 보스턴을 중심으로 해 사시며 구석구석 이분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다문화 교회의 시무장으로 그리고 '국제선'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씨앗을 뿌렸고 함께 일하며 귀한 열매를 맺고 지금도 뒤에서 여전히 디딤돌이 되고 버팀목이 되어 묵묵히 계신 것이다. 모두 반가운 마음으로 함께 모여 얘기를 나누고 또 나누어도 시간이 모자란다.

이번 행사에서 <국제선 회원 & 보스턴한미노인회 회원>이 주축이 되어 '난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 난타팀을 이끌다가 플로리다

로 이사를 하셔서 아쉬움이 컸는데, 이번 행사를 위해 열심히 연습과 복습으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미 플로리다에도 착하시자마자 '난타 & 요가' 팀들을 구성 열심히 가르치고 계시단다. 요즘 <보스턴한미노인회> 난타 지도는 젊고 멋쟁이 남자 선생님이 하고 계신다. 가끔 모임에 참석해 곁에서 보면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배우는 학생들이나 어찌 그리도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는지 부럽기 그지없다.

이처럼 쉬지 않는 기도와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분이 계셨기에 국제선(국제결혼가정선교회-National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Family Mission)이 오늘날까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의지하며 버팀목이 되어 왔는지도 모른다. 옛그제는 국제선 임원회 모임에 플로리다에 오신 유영심 장로님을 뵈려고 갔었다. 임원들의 활동이 어찌나 활발하던지 보는 나 도 참으로 든든했다. 국제선 회원들을 보니 국제결혼가정을 이룬 분만이 아닌, 일반 한국 가정을 이루신 분들도 몇 계셨다. 이번 행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국제선 임원들을 보면서 큰 박수로 응원하고 기도한다.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기)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요새도 방영되는가. 판사 주디 (Judge Judy). 미국티비 방송이다. 평일 오후 한가한 시간대에 방영되었다. 여판사가 나왔고, 간단한 약식재판을 실제 중계했다. 교통사고중 접촉사고며, 옆집 나무가 내집마당에 넘어졌다는 따위의 소송과 재판과정을 보여줬다.
수필 한토막이 기억에 삼삼하다. 김태길교수가 썼던 글이다. 제목이 '삼등석' 인데, 글 한 대목이다.

... 첫인상은 기자 정거장 삼등 대기실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의 그것과 비슷했다. ... 그 삼등 손님들 대열 가운데 나도 끼여 앉았다. ... "일등 기립!" 구령 소리에 눈을 떴다. ... 얼마 동안 더 기다렸다. 마침내 "김태길!" 하는 소리가 재판장의 입을 통하여 들려 왔다. "네" 하고 앞으로 나서는 나의 모습이 참으로 초라하게 느껴졌다. ... "당신이 바로 김태길이요?"
"... 5월 28일에 다시 나오시오"

한담객설閑談客說: 삼등석 손님



김화욱
보스턴코리아 칼럼니스트

"열시에 나와서 지금까지 기다렸는데요."
"어쨌든 오늘은 그대로 돌아가시고 다음에 다시 나오시오."
... 쓴웃음을 지으며 밖으로 나왔을 때, '뽕뽕' 하고 관용 지프 한 대가 길을 비키라고 호통을 쳤다.
(김태길, 삼등석)

한국에선 법원에 갈 일이 없었다. 참, 출입국 관리소엔 가봤다. 증명서 떼러 가본적이 있다는 거다. 관공사와 변호사가 직업이라면 이야기는 다르다. 법원에 가야 할일이 많을 게다. 하지만,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반시민에게 법원은 즐거운 마음으로 갈만한 곳은 아닌게 분명하다. 배심원으로 호출되었다면 가야한다.

법은 엄중하고, 모두에게 공평해야 할 것이다. 예전엔 불공평했다는 말은 아니다. 그런데, 여전히 법원 판결이 여론과 동떨어지는 경우도 자주 있는 모양이다. 기대에 어긋난 판결에 따라, 갈등이 제법 깊다고도 했다. 법감정이란 것도 있는데 그건 뭐가. 설마 감정과 기분에 따라 법

이 고무줄이 되는 건 아니겠지.
며칠전, 한국신문에서 읽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말했다.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니, 임용되기전에 팔겠다. 임용된 다음에 팔겠다는 소리가 아닌게 다행이라 해야 하나. 불법은 아닌 모양인데, 이쯤하여 국민정서라 하던가, 한국신문 기사 첫머리에 쓴웃음이 난다. '주식 팔아 재판관직 사려하나.'
이젠 돈없고 높은 직책에 앉지 못한 삼등석 손님이 오히려 낫지 싶다.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까발릴 일은 없을 테니 말이다. 하긴 까발려 보았자 먼지만 날뿐이다.
한국엔 경범죄라는 것도 있었다. 노상방뇨, 장발, 미니스커트는 과출소로 끌려 가야했다. 닭장차에 실려 법원에 가지 않은것만도 다행이었다.
세상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 삼등석 승객들을 태우고 세상기차는 어디를 향해 달리고 있는가.
네가 가이사앞에 서야 하겠고 (사도행전 27:24)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 안내

“어떤 일에 가치와 보람을 찾으며 몸은 비록 묶이나 마음은 자유로워져야합니다. 하루아침에 성격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만큼 시간이 걸렸으며 더 나아가서는 태어나기 전의 전생 업까지 관계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의식이나 행위가 행복과 불행의 원인이 되니 자신을 먼저 성찰하는 마음공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문수사 회주 도범 스님, “구도자의 발자취” 중에서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봉축법회: 불기 2563년 (2019년) 5월 12일 일요일

제1부 오전 11시: 봉축 법회

제2부: 관불의식, 축하공연

제3부: 오후 3시 수계식

제가 불자로서 오계의 가치를 지키며 살겠다는 맹세를 하는 의식입니다. 불명이 있으신 분도 새롭게 계를 받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주지스님께 미리 신청 바랍니다.

장소: 문수사 큰법당, 231 Salem Street, Wakefield, MA 01880

문의: (781) 224-0670, (781) 439-8383

* 연등접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지 스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781) 439-8383 입니다.

* 행사 당일 라이드가 필요하시면 문수사로 연락바랍니다.

* 찾아오시는 길: I-95 North Exit 42로 나오신 후, 바로 Salem St으로 우회전, 약 150 미터 전방에서 Gst station의 왼쪽길로 직진후 약 200미터를 더 오시면 갈라지는 길에서 오른쪽에 문수사 표지를 보실수 있습니다. I-95 South Exit 42로 나오실때는 Exit 직후 좌회전하신뒤 Salem St에서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문수사는 모든분께 열려있습니다.
정기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00시



회주 도범스님
주지 혜각스님



MUNSUSA TEMPLE
자연스러움이 아름다운 도량



백영주의 부동산 파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융자 Financing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흔하게 듣는 융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 보려고 한다.

많은 한인 분들이 융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내가 미국에 이민 온 1982년에 융자이율은 18%였다.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은 지난 10년간의 이자율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들 생각 하신다. 하지만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이자율이 5%에요 라고 말씀 드리면 비싸다고들 하신다. 한국사람들은 집을 가지고 있는게 필수다. 그래서 대부분 부모님이 장만 해 주시거나 물려 받는게 대부분이다. 하지만 미국은 거의 융자를 이용해서 집을 장만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집이 은행 소유이다. 미국에서 융자를 끼고 집을 살 경우에 세금에 혜택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웬만큼 인컴이 되고 페이먼트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융자를 끼고 집을 산다.

그럼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자.

상식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줄 때는 이 사람이 돈을 갚을 수 있나 없나를 본다. 그럼 인컴이 있다는 증명을 보여 줘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지난 2년간의 인컴을 본다. 그리고 그 인컴의 40%에서 45% 정도를 집을 살 수 있는 인컴으로 따진다. 직장 생활을 하셔서 W2를 받으시는 분들은 계산 하기가 정말 쉽다. 하지만 본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비용을 많이 떼고 보고를 하시기 때문에 융자 연기가 쉽지는 않다. 적어도 집을 구매하기 2년전 부터 본인 회계사와 의논해서 미리 융자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도록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다운페이먼트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자. 이번주에 어떤 손님을 만났는데 “2만불 정도가 현금으로 있고요. 18만불이 은행에 있어요” 라고 했다. 내 대답은 “집 3개월후에나 사실 수 있네요” 이다. 은행에서 보는 것은 다운페이먼트가 적어도 본인 미국계

좌안에 돈이 2개월 이상 있어야 한다. 이 손님 같은 경우는 나누어서 다과짓해야 하고 또 2달 bank statement에 돈이 있었다는 걸 보여 줘야 하니 빨라야 3달후에나 집을 살 수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가장 큰 부동산 회사인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Commercial Division 에서는 Berkshire Hathaway Bank가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좋은 프로그램을 준다.

“\$10,000 in closing costs!* Zero down! 3% down with no PMI! Low credit scores! We have lender partners that will finance credit scores starting at 520. We can help offer financing programs to fit every person's need”

하나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 해야 하는 것은 인컴이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인 인컴의 40%로 빌린 돈을 다달이 갚으실 수 있으면 융자는 가능 하다는 얘기다.

이런 혜택을 내 고객들에게 받게 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회사를 하면서 큰 회사와 같이 일을 하는게 얼마나 이익이 된다는 걸 알아서 난 큰 회사를 택한 것이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272 화랑세기(花郎世紀), 11세 풍월주(風月主) 하종(夏宗)(13)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576년 진흥왕이 봉어하였다. 12세의 하종은 늘 진흥왕의 총애와 은혜를 잊지않았다.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왕의 생일과 기일에 왕능을 찾아 추념하였고, 588년 풍월주의 위에 올라서는 휘하의 낭도들을 데리고 능을 찾았다. 비바람이 불거나 눈보라가 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번 능침에 가서 눈물을 흘렸다. 그는 어려서 부터 정에 치우치지 않았고 화랑도의 수장이 되어서도 낭도들을 편애하거나 부당하게 질책하지 않았기에 많은 낭도들로부터 신망을 얻고 있었다. 하지만 오래전 7세 풍월주 설원랑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던 화랑도 조직 내부의 파벌을 아우르기는 쉽지 않았다.

하종의 어머니 미실이 대원신통이었기에 그 또한 대원신통이었다. 자녀들의 인통(姻統)은 모계를 따랐다. 그래서 문노파에 속해있던 낭도들은 그를 잘 따르지 않았다. 이에 미실은 화랑도들이 화합하여 하종을 따르게 하기 위하여 보리공(稗利公)을 부제로 삼았다. 보리공의 아버지는 이화공이고 어머니는 숙명공주로 지소태후의 딸이다. 즉 지소가 진골정통의 종종이니 숙명과 보리는 진골정통이었다. 162) 당시 화랑도는 크게 다섯분파로 나누어져 있었다. 163) 첫째는 통합원류파이다. 이들은 문노파 중에서도 가장 정예들이 임종, 대세, 수일 등이 중심이었다. 둘째는 미실일파이다. 이들은 대원신통의 인맥으로

하종, 구륜공 등이 중심이었다. 셋째는 문노정파이다. 이들은 진골정통으로 지소태후의 명령을 받았기에 가장 권력이 있었으며 옛 규정과 전통을 지키는 낭도들로 보리공, 숙리부 등이 중심이었다. 넷째는 이화류이다. 이 낭도들은 통합원류파와 문노정파 중에서 흥성된 무리들로 정숙대자를 풍월주로 세우고 원공을 부제로 하려던 일파였다. 마지막 한파는 가야파이다. 통합원류파 중에서 천주공을 풍월주로 세우고 김서현을 부제로 삼으려 했던 무리들이다.

이렇듯 대략 다섯파가 있었지만 크게는 두파였다. 진골정통파와 대원신통파가 늘 양립하였다. 그래서 화랑의 수장인 풍월주는 당시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배출되었으며 서로의 이익이 기대에 충족되지 않으면 반복하였다. 외적으로는 화합을 하는 것 같았지만 풍월주와 부제의 인맥이 다르면 결국 봉당의 골은 깊어만 갔다. 특히 당시 미실은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보리공을 부제로 삼았지만 오히려 낭도들을 비롯한 낭도들은 더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지휘계통에 항명으로 인한 대혼란이 생기자 보리는 하종을 찾았다. 화합의 묘수가 떠오르지 않았던 하종은 4세 풍월주를 역임하고 당시 상선(上仙)의 위에 있던 보리공의 아버지 이화공을 찾았다. 그리고 낭도들을 바르게 지도할 가르침을 요청하였다. 이에 이화공은 풍월주 하종과 아들 보리에게 화랑도들이 나아갈 길도를 충언하였다. 화랑도들은 시시비비로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본래

우주의 청원(淸元)의 기(氣)에서 나온 선도(仙道)를 따르라고 했다. 그리고 그 선도의 실행은 3세 풍월주 모랑공이 가장 모범적이었는데 아쉽게도 그만 그는 요절하여 자신도 다 배우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다. 164) 그리고 이화공은 풍월주의 위를 도도를 통해서 구하지 않고 권세를 통하여 계승했기에 낭도들이 따르지 않음에 수치를 느낀다고 했다. 또한 계속되는 낭도들의 반목으로 지휘계통이 흔들린다면 차라리 풍월주의 위를 버리고 도를 구함이 참다운 생이라고 설화하였다. 이에 느낀바가 있었던 하종은 풍월주의 위를 사임하고 득도에 전념하고자 하였다. 그러자 그를 따르던 낭도들이 이화공 자신이 다시 풍월주가 되려는 계략이라고 진언하여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 결국 사도태후와 미실은 이화공, 세종공 등 모든 상선들로 하여금 ‘낭도대회’를 열게하였고 연회를 베풀어 화합하도록 했다. 그리고 불만을 나타내며 소외되었던 낭도들도 등용하였다. 즉 미실과가 독차지한 화랑의 요직을 이화공을 따르던 무리와 가야파에게도 나누어 주면서 화랑도의 내부는 다소나마 진정되었다. 이때 가야파에서 대표적으로 김서현이 전방화랑으로 등용되었다. 김서현은 김유신의 아버지이고, 전방화랑은 풍월주와 부제 다음 서열이다.

162) 진골정통의 조부는 옥모(玉帽)였고, 종종은 지소태후였다. 반면에 대원신통의 조는 보미

寶美였으며, 종은 사도태후였다.
163) 10세 풍월주 미생랑조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164) 모랑공은 3세 풍월주를 지냈다. 모랑의 아버지는 법흥왕이고 어머니는 백제 동성왕의 딸인 보과공주이다. 남모는 모랑의 누이이다. 남모는 화랑도 이전에 원화의 수장으로 낭도들을 이끌었다. 그러다가 준정의 질투로 살해되었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 지소태후가 원화를 폐지하고 화랑도를 설치하였다. 이 때가 진흥왕의 즉위년인 540년으로 보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그리고 이화랑의 부모는 1세 풍월주 위화랑과 준실부인인데 누이 준화와 이화랑을 두었다. 준화가 모랑공과 혼인하였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딸 준모가 태어났고, 모랑은 풍월주의 위에 있을 당시 요절하였다. 법흥왕이 국공(國公)의 신분으로 백제로 가서 보과공주와 사통한 시기는 479 ~ 500년으로 보인다. 한편 백제의 동성왕은 어린 시절을 일본에서 살다가 479년에 전왕 삼근왕이 피살되면서, 세력을 잡고 있던 진씨(眞氏)들에 의해 즉위하였다. 그리고 501년, 재위 23년 겨울에 사냥을 나갔다가 폭설을 만나 근처에 머무르던 중 위사좌평(衛士佐平) (경호실장) 백가정변을 일으키면서 시해당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475년 고구려가 백제를 침범하였을 때 신라가 원병을 보내면서 신라와 백제는 사이가 좋았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뉴잉글랜드 생명과학협회 **NEBS** *New England Bioscience Society* 2019년 27차 연례학술대회

일시: 2017년 5월 18일 (토) 9:00 am - 7:00 pm

장소: Harvard Medical School TMEC Walter Amphitheater
260 Longwood Avenue, Boston, MA 02115



Keynote Speakers

1. Jay H. Chung, Ph.D., M.D., NHLBI,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2. Jong Sung (John) Koh, Ph.D., Genosco, Inc

Career Development Session

한인 과학자분들의 학술 발표 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활동 중이신 분들과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커리어 패널 디스커션 및 flash talk를 준비하였습니다.

1. 커리어 패널 디스커션 1 (Industry)
2. 커리어 패널 디스커션 2 (Academia)
3. Flash Talk - 짧은 시간 동안의 발표를 통해 서로의 연구분야에 대해 더 효율적으로 이해하고 네트워킹 가능

*참여를 원하는 경우 Event brite 신청시 체크 요망

식사 : 아침, 점심 - 커피, 과일 및 샌드위치 등, 저녁 - 한식 및 맥주

등록 : <https://www.eventbrite.com/e/2019-nebs-27th-annual-conference-tickets-59416067056>

1. 날짜: 2019년 5월 18일 토요일
2. Early Bird Registration (\$10): 4월 28일까지
3. Regular Registration (\$20): 4월 29일 ~ 5월 17일,
4. On-site Registration (\$25): 5월 18일
5. Poster abstract submission: 5월 8일까지

* Poster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께 한하여 abstract 신청을 받습니다. Eventbrite 신청시에 Other information 란의 Poster Title, Abstract 내용 및 출판논문 웹사이트(optional)를 작성해 보내주시면 최대한 많은 포스터 지원자 분들께 포스터 어워드와 소정의 상금(\$50)을 수여할 예정이니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NEBS *New England Bioscience Society*

NEBS(www.nebskorea.com)는 미국 보스톤과 뉴잉글랜드 지역의 한인 신진 생명과학자들간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1984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창립 35주년을 맞는 비영리 학술단체다. 하버드, MIT, 예일, 텡스, 브라운, 보스톤, 유펜 등 유수의 대학들과 보스톤 지역에 위치한 20여 개의 생명과학 연구소와 바이오벤처 등에서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생명과학자 50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Sharing the Muse

The Pushkin Songs and m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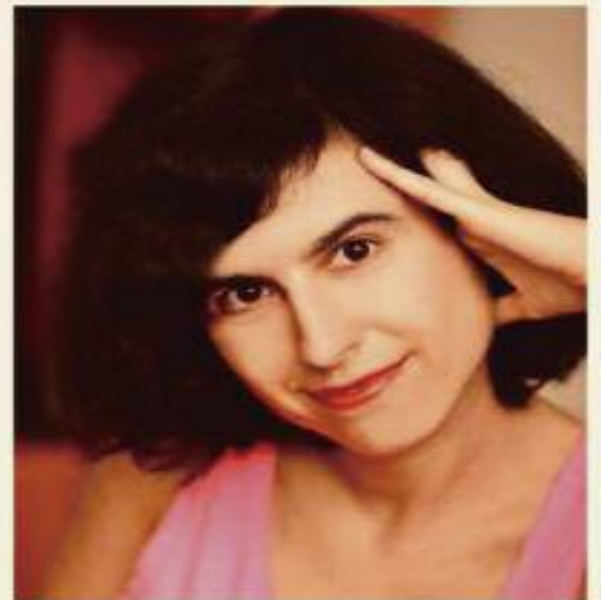
In celebration of the 220th anniversary of Alexander Pushkin (1799-1837)'s Birth



HAESHIN SHIN
PIANO



ELENA MINDLINA
SOPRA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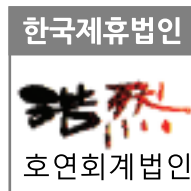
NATALIYA MEDVEDOVSKAYA
COMPOSER-PIANIST

MAY 2, 2019 (THU) 6:30 PM
Hunneman Hall
Public Library of Brookline

Works by MEDTNER, SVIRIDOV, MEDVEDOVSKAYA, LEE, KIM, BRODSZKY

www.MedtnerKorea.com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보스톤 **코리아**
www.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이제 인터넷 신문으로 보세요

보스톤코리아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시거나,
이메일 주소 혹은 카카오톡 아이디를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온라인 신문을
직접 발송해 드립니다.

이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보스톤코리아
기사를 확인하세요!



보스톤코리아

보스톤 한인업소록



구글에서 찾을 수 없는 한인업소들의 알짜 정보를 담은 한인업소록을 발간

보스톤의 모든 한인 업소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

2013년 보스토니안 발행이후, 6년만에 보스톤 한인업소록을 개정해서 발간합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2019년 보스톤 한인업소록에는 보스톤 지역뿐만 아니라, 로드 아일랜드 및 뉴햄프셔 등 뉴잉글랜드 지역을 포함하여 필요한 정보를 망라합니다.

이 디지털 한인업소록은 카톡, 페이스북 등의 SNS와 이메일 등으로 고객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지금 바로 보스톤코리아로 연락하십시오.

광고 문의 및 업소등록 : 617.254.4654

				<p>보스톤코리아</p> <p>617.254.4654</p> <p>bostonkorean@hotmail.com</p>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1.800.867.9000

Cell 508.962.2689
Tel 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 kayleebrokers@aol.com



- * 상가 건물 전문-투자, R&D, 콘도, 아파트 건물
- * 상가 건물 용자, 비즈니스 용자 알선
- * 1031 Exchange (상가건물 세금 혜택) 서비스
- *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 * E2 바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 상담
- * 다양한 리스팅 많이 보유

전국 프랜차이즈 Subway 보스턴 남쪽, 연매상 \$395,000 매매가격:\$140,000 (\$7,500 - 한 번 내는 이전비 포함), 대학교 근처 훈련, 소유자 20+ 년 경영후 은퇴

보스턴 북쪽 풀 플랜트 연매상 \$120,000+ 고급 동네, 좋은 매매가격, 처음 사업 시작하는 바이어 환영. 오우너 파이낸스 고려

렉싱턴 근교 세탁소 드랍 연매상 \$165,000 40년+ 운영, 소유자건강 문제, 공장소유자 환영

급매매, 매드포드/섬머빌 세탁소 연매상: \$110,000, 좋은 매매가격: \$80,000

급매매, 보스턴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 연매상 \$265,000, 좋은 매매 가격 \$200,000 고급 동네

보스턴 남서쪽, 내일 + 스킨 살롱: 연매상 \$250,000 + 온라인 화장품 세일 (\$400,000+)

로드아일랜드 성업중인 한국 식당 연매상 \$2.0M, 매매가격 \$640k 풀리커 면허증, 72석, 대학교 근처

주유소+컨비니언스 여러장소 리스팅 있음

보스턴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노 퍼크기계 소유자 은퇴

보스턴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780,000 드롭스토어 연매상 \$200,000 렌트 \$800/월, 100% 고용인이 경영 총연매상 \$980,000 오너파이낸스고려 소유자 은퇴 (30년-건물주인)

보스턴 서쪽 풀 플랜트 & 셔츠 기계 최고의 위치, 대형 플라자, 40년이상 존재 연매상: \$390,000+

보스턴 북쪽 동양식당과 부동산 (오피스 콘도) 식당 연매상 \$725k, 풀리커 면허증, 고급 동네 매매가격 \$2M, 셀러 은퇴

보스턴 북쪽 세탁소+셔츠유닛+드롭오피스토어 연매상 \$500,000+ 하이드로 카본 세탁기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 비즈니스

프래밍햄 지역: 연매상 \$250,000 소유자 100% 부재중 운영, 새 기계들

보스턴 북쪽 헤어살롱, 아주고급동네 연매상 \$80,000 좋은 렌트



마음대로 골라본다

\$24⁹⁹

5월 1일부터 Tbo 상품의 가격이 인상됩니다. 가입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은 4월 30일까지 서둘러 가입하세요!

상품 가격이 아래와 같이 조정됩니다. (무료영화는 4월 및 5월까지 무료. 6월부터 편당 1불로 변경)



KBS MBC SBS

Plus 상품

KBS, MBC, SBS, EBS, YOUTUBE

\$24⁹⁹

Premium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YOUTUBE

\$34⁹⁹

VIP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영화/성인, YOUTUBE

\$39⁹⁹

*전상품 무약정

티보 대리점 모집

각 딜러는 LA 본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초기 자본 없이 창업이 가능합니다. 주요 업무: 신규 서비스 설치 및 기존 고객관리
연락처: 617.949.1766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